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기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4월 21일 (토) 제 167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미국교인 51% '지상대명령' 모른다!

바나리서치, 미국교회 성경 문맹률 심각성 증거하는 설문 결과 발표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28:18-20절은 "지상대명령"으로 불리우는 익숙한 말씀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선교 지상명령으로 이 구절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지표로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현재 선교사 파송 1위 자리를 부동으로 지키고 있는 미국 교회 크리스천들 중 51%가 이 말씀을 모른다. 바나리서치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수님의 선교 지상명령을 들어보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미국교회 교인들 중 절반(51%)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수년 전부터 미국교회의 위기 중 하나인 "성경문맹률"의 구체적인 사례가, 이번 설문 결과를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났다(51% of Churchgoers Don't Know of the Great Commission).

이번 설문은 2017년 7월 초기 단계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총 84명에게 먼저 시행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미 전역에서 무작위로 1,010명 성인들과 619명의 목회자들 그리고 1,004명의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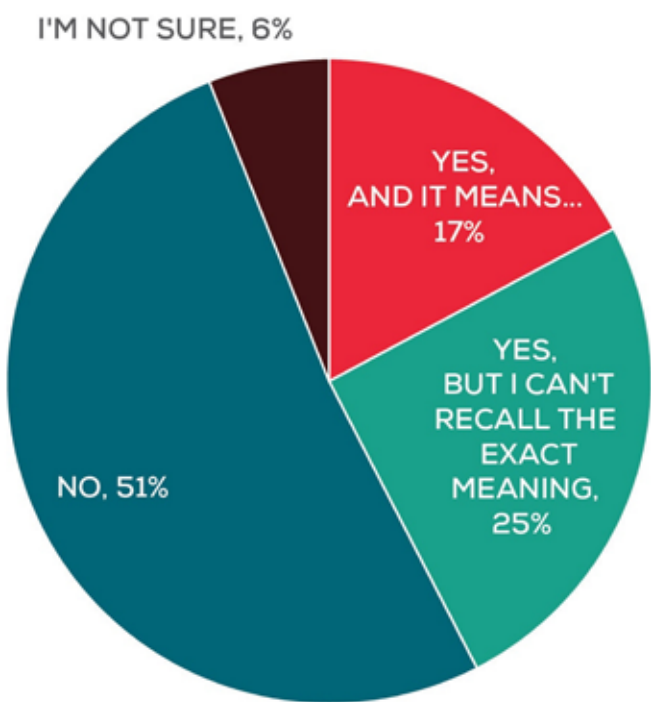
그런데 이번 설문 결과의 심각성은 놀라울 정도다. 2015년 바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가정의 88%가 최소한 한 권의 성경책을 갖고 있었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성인 4명 중 한 명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경은 서가를 채우는 장식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교회 성경문맹률은 심각하다.

성경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우선순위를 두고 강조하지 않기에, 교인들은 성경을 잘 모른다.

바나는 다른 방법으로 지상명령을 물었다. 성경에서 서로 다른 5가지 구절들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지상명령을 담고 있는 구절을 선택하라고 물었다. 그러자 37%만이 정확하게 해당 구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교회 교인들 대부분 즉 94%가 지상명령에 대해서 들어보았다고는 응답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33%는 어떠한 말씀이 지상명령인지 모르겠다고 응답했고, 31%는 잘못 선택했다.

연령대에 따른 편차는 더욱 심각하다. 엘더스나 부머 세대는 각각 29%, 26%로 그나마 인지하고는 있지만, 젠X는 17%, 밀레니엄은 10%정도만 알고 있었기 때문

교회출석자: "지상대명령" 이란말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이다. 따라서 "명목상 크리스천" 또는 "무니만 크리스천"과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과의 편차가 크다. 실제적 크리스천들 25% 정도가 지상명령을 인지하는 반면에, 명목상 크리스천은 6%에 그쳐 무려 4배 정도 낮았다.

좀 더 부연하자면, 소위 "성경에 마음이 있는 크리스천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일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 36%는 지상명령을 알고 있고, 57%는 5가지 성경 말씀들 중에서 정확하게 마태복음 28:18-20절을 선택했다.

목회자는 "코치" ...관계 리더십 중요

리더십저널, 로널드 리처드슨 목사의 '훌륭한 코치' 되는 노하우 소개

목회자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운동코치와 같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매진하는 목회자의 모습은 선수들의 능력 강화와 기록 갱신을 위해 노력하는 코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목사이자 목회 상담자인 로널드 리처드슨(Ronald Richardson)은 "목회는 관계 리더십"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오랫동안 목회 활동과 상담을 실시했다. 목회 현장 경험을 가족체계이론과 통합해 목회자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목회자가 코치와 같이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실제적 코칭 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신뢰 쌓는 것이 중요
지나친 코칭 피하고 다른 코치들과 나눔 통해 새로워져야

목회자는 훌륭한 코치가 되어야 한다. 훌륭한 코치는 팀과 하나로 연합돼 있으며, 각 선수들의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선수들의 운동기술만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더 넓은 각도를 가지고 더 먼 곳까지,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본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갖는 협력적 관계와 개개인의 기술을 발달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목회자는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성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렘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선대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선대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다락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innet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핸드폰 347-952-5442 1-800-404-1171
E-mail: qospellmail@hotmail.com

	2면		7면		8면		14면
시론 최해근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인/티/뷰 윤향금 사모	

KIM Mission - 월드크리스천 무브먼트 한국어 세미나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서 보는 세계선교)

사역멘토 (KIM Ministry Mentors)

장동찬 목사 (뉴욕시교회 원로목사)	김윤환 목사 (HS Ministry 대표)	김승년 목사 (베른주지침사원장)	박영배 목사 (CA NewLifeMission)	손창식 목사 (SD 신앙교회)	전광성 목사 (NY 워너비교회)	김용식 목사 (상해영광장교회)	임재환 목사 (호튼교회, 크리스챤)
대표		파송선교사		이사장		전임이사장	
김대영 목사 (이스턴콘퍼런스)	Rev. Tony Hartman (SA Anglican Fellowship)	바나바스김 선교사 (미국군군목)	김정용 박사 (메트로피아)	임이근 장로 (스페인, 라스팔마스)	최도문 박사 (치과, 말라스)	강태원 장로 (비즈니스, NJ)	기광현 장로 (IC Global, NY)
한도혜 집사 (상남성심교회 대표)	황경규 집사 (미르니스, NY)	손동우 박사 (미르니스, NJ)	이원구 안수집사 (산인대병원, 서울)	임재원 집사 (K&S 대표, 미르니스)	임소영 자매 (간호사, NY)	강동철 집사 (비즈니스, NJ)	이순권 박사 (치과, TX)
기도이사							
김중대 장로 (토론토말교회)	김상익 장로 (WCF 로몬로회)	윤세범 장로	최보람 권사	윤천경 권사	최인덕 권사	서수현 권사	서덕희 집사

[다시 업그레이드 된 퍼스펙티브스 -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KIM Mission이 지난 17년 간 미주와 전세계 선교지 및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해 집중 보급해 온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이번에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우리 KIM Mission 이사회원들은 대부분이 세미나를 여러 차례 수료하고 강의해 온 헌신된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량으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를 북미주한인교회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사회, 그리고 여러 선교현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찾아가 보급하고 섬깁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전 세계로 확산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던 피터 왜그너 Peter Wagner 박사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라고 외친 현대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좌우명이 우리를 독려합니다.

[제55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볼리비아 현지 세미나]

김 미션이 오래 동안 기도해 오던 남미의 오지 국가 볼리비아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한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55번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가 아래와 같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주일간의 볼리비아 단기선교와 현지에서 진행될 세미나에 동행, 동참하실 선교 동역자 및 관심자들을 기다립니다.

- 일시 및 장소: 2018년 10월 9일 (월) - 15일 (월) 6박7일간 볼리비아의 수도 La Paz 한인교회당 (8일간의 세미나와 9일 간의 볼리비아 선교 사역지 탐방 및 한인 선교사님들과 동행)
- 주최: 볼리비아한인선교사협의회 (회장 김익삼 선교사)
- 대상: Bolivia 한인선교사 부부, 한인교회 지도자 및 기타 선교동역/관심자
- 강사: 바나바스김선교사 (KIM Mission 대표, 미국군 예비군 군목, Chaplain Clinician: 자비량 선교사); 김용식 목사 (KIM Mission 사역멘토, 상백을루 영광장교회 담임); 김대영 목사 (KIM Mission 사역멘토, 이스턴 콘퍼런스 담임)

KOREAN INTERNATIONAL MINISTRIES (KIM MISSION) www.KIMMission.org
* 연락처: 김 미션 본부 (626. 354. 2294 혹은 213. 215. 9834), E-mail: 1020miracle@gmail.com

가상현실이 SNS보다 더 위험하다!

뉴스위크, 미래 가상현실 오용의 위협적인 위험성 경고

세계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이제야 잘 알게 됐듯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기술 중 일부는 오히려 우리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영국의 정치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사용자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스캔들만 말하는 게 아니다.

소셜미디어 기업이 제공하는 맞춤 정보에 의존해 정보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점점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히는 것을 '필터 버블(filter bubble)' 현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사용자의 눈에는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게시글만 보인다는 뜻이다. 그런 '필터 버블'은 사용자의 행동과 사고방식, 심지어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할 지까지도 조종하는 선별된 정보(또는 허위정보)로 가득하다.

개인사 사회 두 차원 모두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접하는 뉴스가

어떻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제야 겨우 페이스북 피드가 고도로 계산된 광고를 통해 얼마나 정교하게 조종되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조차도 이미 시작된 또 다른 기술혁명인 가상현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비하면 별 것 아니다.

따라서 뉴스위크는 가상현실이 페이스북 같은 SNS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시청각적으로 주어지는 강렬한 체험과 개인적인 데이터가 합쳐지면서 영향력이 큰 가짜뉴스 만들어 퍼뜨리기 쉽기 때문이다(FACEBOOK'S PSYCHOLOGICAL PROFILING SCANDAL IS JUST THE START-VIRTUAL REALITY IS THE NEXT THREAT). 이 글을 쓴 엘리사 레드마일스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컴퓨터과학 박사과정에 있다.

가상현실은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또는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이때 만들어진 가상의 환경이나 상황은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며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시간적 체험을 유도함으로써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에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실제 디바이스를 이용해 조작이나 명령을 하는 등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할 수



현재 상영 중인 "Ready Player One" 에서, 스티븐 스티븐버그 감독은 미래는 바로 가상현실만이 삶의 전부가 된다고 예언한다.

사람들은 가상으로 헬리콥터를 타거나 고대 이집트를 여행할 수 있다. 또 통증을 완화하거나 심리적 장애를 치료하는 등 현실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속임수는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로그인하거나 글 또는 사진을 올리는 등 서로에게 치는 흔한 장난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한 가상현실 사용자는 "누군가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의 ID로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무한한 가능성 지닌 가상세계... 진정한 몰입 체험 가능
치료위한 데이터와 정보, 개인화하는데 사용하면 문제
신분도용 이용 소지...윤리지침 만들어도 지킬지 의문

있다. 가상현실은 사용자와 상호작용하고 새로운 체험을 창출한다는 면에서 일반적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과는 구분된다.

이런 가상세계는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다. 가상현실 게임은 마약중독자를 치료하거나,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확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재소자는 출소 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기술보다 심리적으로 더 강력할 수 있는 이런 몰입 기술을 체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그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최초의 가상현실 기기는 14분 만에 매진됐다).

이런 새로운 세계에선 그 가상의 땅에서 발견되는 모든 잎과 돌멩이, 또는 모든 대화가

철저한 계산 아래 신중하게 만들어진다. 나는 동료와 함께 가상현실 개발자들과 초기 사용자들을 면담하면서 가상현실의 윤리를 어떻게 정의할지 연구했다. 어떤 위험이 예상되며 그런 위험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다.

한 개발자는 "가상현실은 아주 개인적이며 자신에게 친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현실 헤드셋을 착용하면 그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진다. 진정한 몰입 체험이다." 가상현실에서 누군가가 당신을 해친다면 실제로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가 당신을 조종해 뭔가를 믿게 만든다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완전한 몰입이다. 한 사용자는 "가상현실의 특징점이 몰입이다. TV를 볼 땐 주의가 끊임없이 산만해질 수 있지만 가상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그런 몰입으로 가상현실은 전례 없는 힘을 갖는다. "가상현실은 우리가 속아 넘어갈 정도로 현실을 그대로 복제하려고 한다."

물론 그런 속임수가 즐거운 체험이 될 수 있다. 그를 통해

보라"고 말했다. "그건 심각한 신원도용이다. 가상현실이 보편화되면 그런 신원도용이 성행할 수 있다."

가상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미 치료를 위해 고안된 가상현실 적외선 센서는 해롭지 않아 보이지만 사용자의 현실세계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포착할 수 있어 나쁜 의도로 오용되기 쉽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아메리칸드림 대(對) 중국몽(中國夢)



최해근 목사 (동고메리교회)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전 세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변화들이 매일 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지역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좁게는 한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고 넓게는 국가의 영토를 초월하는 언어의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더 이상 개인의 서재나 사무실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촌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같은 자료를 거의 실시간에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한계를 인터넷을 통해 극복함으로써 우리 앞에는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싸고 귀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가치하고 부패하고 파괴적인 정보들도 우리 주변을 빼곡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취사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 속에서 어느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정보는 버릴 것인가는 때로 개인과 국가의 생과 사를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커피와 점심을 먹을 것인가?' 라는 가장 기초적인 선택에서부터 '어느 국가를 우리의 동맹국으로 맺어야 하는가?' 와 같은 국가의 미래와 직접 관련이 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뚜렷한 현상 중의 하나인 '다양성의 인정과 존중'이라는 이 거대한 흐름으로 인해 이전 세대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가치들이 지금은 마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지닌 것처럼 우리 앞에 다가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가치관의 혼돈이 우리를 공격할 때, 신앙인들에게는 놀랍게도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 시대의 흐름과 가치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고맙게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단순하고 확신에 찬 삶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라도 성경 위에 서서 견다보면 세월과 함께 가장 바닷길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마치 무역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적인 규모나 지역적인 거리를 고려해볼 때 중국이 미국보다 더 바람직한 미래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훌륭한 미래를 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3년 3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중국몽(中國夢)'입니다. '아메리칸드림'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중국꿈'이라는 뜻의 '중국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의 부강, 민족의 부흥, 인민 행복의 실현'입니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 '건전한 국가체제와 가치관 아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공존하고 세계에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함께 협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관철이 보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국 중심의 세계화를 세우려는 주장으로 이해합니다.

한 국가가 세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제적인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제도와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을 앞세워 수가 틀리면 판을 다 뒤집어 버리거나 '손을 봐 주겠다'는 그런 철학이나 국민정신을 가진 나라는 결코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아야 되고 실제 지난 역사에서도 그런 제국은 결코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되었고도 해도 곧 멸망했습니다.

중국몽이나 아메리칸드림이나를 놓고 어느 쪽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가장 관장 할 만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선택입니다. 어느 꿈이 더 화려하고 찬란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어느 꿈이 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증하면 그 나머지 대답은 너무나 간결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국몽'이든 '아메리칸드림'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꿈',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꿈을 짓밟고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꿈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단순하지만 가장 생명력 있는 선택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떤 드림 위에 기초를 하고 있는지요?

thechoi82@yahoo.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 (323) 865-0009 (대 표) (323) 865-9025 (광고국)
· Fax: (323) 865-0056 (편집국) (323) 865-0046 (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 Fax: (718) 886-0074 (대표)
· E-mail: ny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제 8회 청교도복음연구회 정기세미나

“청교도와 성령”

- 일 시: 2018년 5월 5일(토)(7:00 AM-8:00 PM)
- 장 소: 1. Church of Jonathan Edwards ('The First Church of Northampton') 129 Main Street, Northampton, MA 01060
2. 조나단 에드워즈의 공원묘지 및 근처 J.E. 박물관과 교육센터 ('The Bridge Street Cemetery' & 'J.E. Historic Northampton Museum & Education Center') 156 Bridge Street (Route 9) Northampton, Massachusetts, U.S.A. (413) 587-4900
3. Yankee Candle 제작 판매소 : ('Deerfield Village Store') 25 Greenfield Road South Deerfield road, MA 01373 877-636-7707
- 출 발: 34-30 150 PL Flushing, NY 11354 (노던 신원은행 골목 대한교회 맞은편 천갤러리 마당)
- 일 정: 출발 - 도중 간식 - 교회 - 점심 - (예배 및 세미나) 공원묘지 - 박물관 - 양초가게 - 귀가 길 저녁 - 해산
- 회 비: 교재, 차비, 식사, 입장료 일체. 일인 \$40 (신청예약, 당일회비)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세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구속주 예수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없이는 구원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성령 없이는 중생과 성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원은 태초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만세전부터의 택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나 칼빈같은 개혁자들은 로마교 교황주의가 missa로써 그리스도의 피없는 희생을 예배의 주요요소 삼고 전통종교와 그에 따른 사제제도의 필요불가결을 가르칠 때 이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생애에 적용시킴에 성령의 역할과 필요를 부각시켰습니다. 초대교회, 개혁신앙을 잇는 청교도들에게 있어 선배 칼빈의 성령론은 단순한 론이 아닌 삶 전체였습니다. 영국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이자 신학자 존 오웬, 리차드십스 목사, 미국 대영적각성의 주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 화란의 정치가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 현대에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 베르너 크루슈까지 개혁신앙에 뿌리를 둔 수많은 목사님들에 의한 성령에 대한 체험과 탐구는 개혁교회 산하의 신학교에서조차 칼빈은 성령론에 약하다고 하는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할렘루어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와 정착된 미국청교도의 400주년인 되는 2020년이 되면 저희 청교도 복음연구회의 그동안의 소중한 연구발표회와 예배가 10회를 맞게되어 좀 더 의미있는 세미나를 더 많은 강사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어떤 갑작스럽고 떠돌이적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청교도 정신의 함양이 성도의 삶에 예수그리스도를 품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항상 현장에서 하는 이 세미나에 보다 넓고 깊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강사 및 설교자	내 용	사 역
최기성 목사	청교도와 성령 (설교)	은혜와사랑의교회
김필식 목사	리차드 십스목사의 회심과 성령의 역할	뉴욕영림교회
이창중 목사	존 오웬목사의 청교도와 성령	뉴욕동서교회
김경옥 박사	조나단에드워즈와 성령	청교도복음연구회 가정사역원장

주최: 청교도복음연구회

미국교인 51% '지상대명령' 모른다!

(1면에서 계속)

또 성경 중 신약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자주 읽는 크리스천 중 33%가 인지하고 있고, 52%가 정확하게 선택했다. 반대로 신약을 자주 읽지 않은 경우에는 불과 1%만이 지상명령을 알고 있고, 12%가 올바른 성경 말씀을 선택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번 설문에서도 단연코 두각을 나타낸다. 미국교인 중 평균치인 51%를 상회하는 60%가 정확하게 지상명령을 들었거나 인지하고 있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하

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74%가 정확하게 지상명령 말씀을 선택했다. 결국 복음주의자들이야말로, 좀 더 성경에 가깝고,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커뮤니티에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설문 결과는 지상명령을 인지하고 있는 것만을 겨냥한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지상명령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밝혀 주지는 않는다. 사실상, 지상명령의 강조는 교회사에 있어서도 최근의 현상이며,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만



활발하게 진행된 사역이다.

실제로, 남침례교회 목회자 중 28%와 침례교회 목회자 중 18%가, 자신들의 지난 마지막 설교가 지상명령에 관한 것이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주류교단(6%)보다 비주류교단 목회자들(15%)이 지상명령을 선

교를 위한 설교 내용으로 택했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 개개인의 지상명령 인식도는 바로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나 교단 리더, 목회자가 얼마나 지상명령을 언급하고 해석하며 설교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다.

문화 칼럼



김기원 목사 (장위제일교회 원로)

40년만의 눈물의 거듭남

40년만의 신학교 복학의 길은 눈물의 1년이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2만원짜리 사글세 방, 승용차 13년에서 버스로, 소고기 먹다가 라면, 굶주림에서 금식, 건강하던 몸이 병든 몸 고통의 밤이었습니다. 친구도 떠나고 배신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은 그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고독해서 울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울었습니다. 새벽 제단은 울음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때론 자식들 때론 눈물을 감추고 삼켰습니다. 그러는 사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갔습니다. 다시 맞이한 또 한해 여전히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고난과 신세타령의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스스로 가책 없이 아니 함의 없이 산산 조각난 오만함 뺨뺨함, 내 맘대로 해석하고 결정할 무지와 결단이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물의 강이었습니...

다시 맞이한 또 한해 여전히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고난과 신세타령의 눈물에서 회개의 눈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서원을 스스로 가책 없이 아니 함의 없이 산산 조각난 오만함 뺨뺨함, 내 맘대로 해석하고 결정할 무지와 결단이 그렇게 큰 죄라는 사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눈물의 강이었습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이지, 저에게 주어진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40년 전의 눈물의 반복이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의 눈물, 울고 부르짖고 긴긴밤의 회개 그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저의 심장에 흐르는 십자가 사랑의 깊은 깨달음 그리고 심장에 깊이 새겨져 있는 목양의 동반자들에게 받은 사랑, 숨지는 순간까지 간증하며 자랑하며 사명자의 길을 가고, 숨은 기도의 봉사자로 살고 싶은 마음...

성령의 인침 받기를 기도합니다. kkiwon2002@hanmail.net

목회자는 "코치" ...관계 리더십 중요

(1면에서 계속)

또 훌륭한 코치는 게임을 잘 알고 있다.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고 흘러가는지, 게임에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지, 어떤 선수들을 어떻게 기용하고 활용할 것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알아야 한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구조하거나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을 위해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도 아니다. 목회자는 그들 각자가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의 삶을 살면서 목표를 이루고 좀 더 나은 관계와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사람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보

다 견고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이다.

훌륭한 코치로서 목회자는 성도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목회적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성도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심하게 반응하되, 성도들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충분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질문하고 상담해야 하며, 그들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코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해답을 제

시하고자 하는 훈계 대신에 자주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코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가 코칭을 통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성도들의 문제에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일차적인 감정전이 대상이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면, 목회자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존재가 될 위험이 있다. 훌륭한 코치는 지나친 코칭을 피하고 적절한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는 코치다. 어떤 현상이 발생하든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되, 중립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훌륭한 코치는 다른 코치들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코치다. 목회자는 목회자 자신의 코치와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접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

들의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더욱 좋은 코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코치의 역할을 하면서 경험하는 상황들이나 특정한 성도들과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의 다른 코치와 나누면서 자신의 코칭과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 다른 훌륭한 코치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생각이나 사역을 들으며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고나 사역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 여러분은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훌륭한 코치는 성도들과 함께 뛰며, 신뢰 관계를 쌓는 코치다. 그리고 지나친 코칭을 피하고 다른 코치들과의 나눔을 통해 새로워지는 코치다. 여러분의 코칭을 받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양육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훌륭한 코치가 되기 위해 애쓰시길 바란다.

가상현실이 SNS보다 더 위험하다!

(2면에서 계속)

더구나 가상현실을 이용해 우리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이터와 상호작용은 사용자의 정확한 취약점에 맞춘 경험과 정보를 정밀하게 개인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 가상현실 체험의 강렬함과 그것들이 수집하는 극히 개인적인 데이터가 합쳐지면 일반 기사와 이미지보다 훨씬 영향력이 큰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릴 수 있다. 몰입적이고 개인화된 체험은 완전히 허구적인 것을 현실로 믿도록 만들어 다른 목적에 오용될 수 있다. 그런 몰입적인 가상현실 광고가 올해 초부터 등장했다.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조종될 수 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조종되고 있다. 그가 보고 듣는 모든 것, 심지어 느끼거나 냄새 맡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가상현실

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상세계에선 현실에서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가상세계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세계의 내부에 건설되어야 한다.

기술 전문가와 사용자가 디지털 기술의 약의적이고 교활한 면을 없애기 위해 애쓰지만 그런 노력이 소

설미디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가상현실 개발자들이 가상세계를 정교하게 만들듯이 우리 사회도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 문화를 의식적으로 공들여 건설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가상현실 개발자가 그런 책임감을 통감한다. 우리 연구에 따르면 VR 개발자들은 누구보다도 사용자의 안전을 더 걱정한다. 그러나 한 개발자는 "그런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 전문가들도 이제야 가상현실의 윤리와 보안, 사생활 보호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우리가 면담한 가상현실 개발자들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 플랫폼의 위험한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첫 단계로 우리는 9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상현실 개발자들과 사용자들을 초청해 가상현실 윤리 지침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포괄성, 교활한 공격자들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문제, 데이터 수집의 한계 등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페이스북 스캔들이 보여주듯이 윤리 지침은 아무리 훌륭해도 잘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다. 플랫폼의 규정과 정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VR 세계에선 그 효과가 훨씬 더 나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실현적으로나마 가상현실의 윤리 지침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만든 기술을 그냥 따르지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이로운 기술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MBA.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Global Leadership 글로벌 리더십 / Global Business 글로벌 비즈니스
Asset/ Investment Management, 투자, 부동산투자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공공정책과 행정학
입학자격: 대학졸업자 및 동등학력자

Doctor of Leadership 이수학점: 48 Credit Hours

Organizational/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면접

Ph.D. in Leadership 이수학점: 60 Credit Hours

Organizational / Ministry Leadership 조직, 사역 리더십
Brain/ Gifted Education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 교육 리더십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리더십 / Political Leadership 정치 리더십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 항공 리더십
입학자격: 대학, 대학원 석사이상자 및 동등자격자
전형방법: 서류심사, 이수 에세이, 일반상식, 영어시험, 면접

Ph.D. in Leadership

사역 리더십 박사학위 과정

Certificate Programs 1년 과정

1. Ministry Leadership- 전도사, 신학생, 권사, 장로, 부목사 등.
2. Pastoral Leadership- 현, 담임목사

위 과정은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과 Midwest University 에서 수료증 수여함
목회자 리더십 과정은 최고의 교수진을 통해 각지역별 특강과 프로젝트에 참여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역자간 네트워크, 사역협력과 친선 및 미래사역 개발, 선교협력을 하게되는 과정입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한 강의와 연구, 모델 사역현장 답사,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사역에 도전.

학위 취득방법 & 인증기관

학위, 학점 취득방법

- 1) 미국 유학을 희망 하는 학생은 SEVIS 1-20 혹은 J-1 Visa
- 2) 직장, 사역을 떠나지 않고 어디서든지 세미나, 소집특강, 온라인으로 학점취득
-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4) M.Div 졸업자는 미국 재단법인 IEA 로 부터 목사안수 가능

Midwest University 는 미 국무부가 지정한 J-1, J-2 Visa Sponsor

인증기관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미국 대학 학력인증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대학코드 (USDE) OPE ID; 03528300)

문의 :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홈페이지 www.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아낌없이 주는’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본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도배했다고 할 정도로 많았던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가이드에 의하면 올리브 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

무는 잘 휘어지지만 부러지지 않아서 도마, 주걱, 그릇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잎은 피부 상처 치료제와 마시는 차로, 줄기는 면류관인 지역을 도배했다고 할 정도로 많았던 올리브 나무였습니다. 가이드에 의하면 올리브 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

올리브기름은 성경시대 전부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온에서 처음 짠 최상급의 엑스트라 버진(extra virgin) 오일은 성전에 바치는 기름으로, 무거운 돌 하나로 눌러서 살짝 짠 기름은 식용으로, 돌 세 개를 올려놓고 짠 기름은 등잔불 기름으로 사용했으며, 남은 찌꺼기는 비누의 재료로 사용하거나,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 램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한 마디로 올리브 나무는 어떤 부분도 버릴 것 없이 쓰임 받는 나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천천히 맺습니다. 4-5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15-20년이 지나야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석회질 토양에 뿌리를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자그마치 천년 이상이라고 하니 20년 기다

림이 별로 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구나 죽어가는 고목 밑동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와서 고목과 연결되어 나무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하니 영원히 불변하는 나무라고 불릴 만도 합니다. 저희들도 예루살렘의 겐세마네 동산의 만국교회 정원에서 2천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와 그 밑동에서 나오는 새순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항상 말없이 자신을 내어줍니다. 열매를 맺어 기꺼이 내어주고, 햇볕이 따가운 날에는 시원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다”는 말처럼 한 번 심겨진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 땅을 묵묵히 지키며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팔레스타인의 올리브 나무!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의 분을 보여줍니다.

올리브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문득 대학생 시절, 교회 대학

부가 주최한 ‘문학의 밤’ 행사에 반강제(?)로 출연했던 연극이 생각났습니다. 쉘 실버스타인(She Silverstein)의 명작,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소재로 한 연극에서 제가 맡은 역은 나무줄기였습니다. 연극 내내 아무 대사도 움직임도 없이 묵묵히 서 있다가, 끝부분에 주인공 소년에게 배 한 척을 마련해 주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줄기 역할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어른이 되고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소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자신의 열매, 나뭇잎, 가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줄기마저 내어주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는, 늙고 지친 노인이 되어 돌아와서 편안히 쉴 곳이 필요한 소년에게 마지막으로 잘린 밑동까지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자신을 내주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우쳐줍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흔한, 그러나 가장 유용한 나무, 아낌없이 주는 올리브 나무를 보며 나도 아낌없이 주는 인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맺은 열매를 남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인생, 지친 자들이 내 그늘에 와서 쉬어갈 수 있는 인생, 오랫동안 한 곳에 뿌리 깊게 심겨져 그 땅을 지키는 인생, 올리브기름처럼 다양한 용도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 긴 시간을 내다보며 조급함 없이 열매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그분이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주는 영적인 올리브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푸/른/초/장

오은규 선교사
(Mila Mission 대표)



신앙생활은 마치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행치 않는 자를 “반석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바울도 고전 3:10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둔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집을 짓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잘 마무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알려면 음식을 같이 먹어보라 했고, 더 자세히 알려면 골프를 같이 쳐보고,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보고, 진짜로 잘 알려면 죽을 때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25:8-9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는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집을 잘 마무리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도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그 사람에게 대하여 알려면 음식을 같이 먹어보라 했고, 더 자세히 알려면 골프를 같이 쳐보고,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여행을 같이 가보고, 진짜로 잘 알려면 죽을 때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신앙의 집을 각자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신앙의 집을 보여드리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이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고

자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대로 했다’는 것입니다(32절). 본문 안에서만도 3회, 그리고 39

장 전체에서 모두 10회나 나온 문장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대로 한 것입니다.

아는 대로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는 바실렐이나 오홀리압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들, 총명한 장인들, 즉 뛰어난 전문가들을 불러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기술이나 재능이나 자기생각, 자기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대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 내 지혜,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벧전4:10에 보면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 주장, 내 능력,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에서 기술에서,

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때론 물질도, 건강도, 사업도, 가정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의 집을 짓고,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눅13장에 보면 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 그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말합니다. 또 말하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고 하다가 다시 한 해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죽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까지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기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수명이 다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이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의 가사를 보시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리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찬송은 장례식에서 부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짐하면서 불러야 할 찬송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지으려고하신 집은 어떤 것일까?

집을 지을 때는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진정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재료와 인력과 시간을 들여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가? 임니다.

성막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했던 곳이었습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5면으로 계속)

신앙의 마무리

(출애굽기 39:32-43)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www.rptseast.org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최근 한국의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음은 본다. 목사이기에 어느 한 쪽으로도 치우친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애를 써보지만 가끔 속내를 들리게 된다. 정치와 종교는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을까? 거둬들여 여러 번 생각해보지만 결코 그럴 수 없음을 본다. 구약 선지자를 보면 알지만 얼마나 왕을 책망하는가? 나라전체를 향하여 얼마나 센 말로 경고하는가? 특별히 아모스서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심판과 저주의 말들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본다.

불의에 대한 침묵과 무감각

그때와 달리 오늘날의 목사들은 정치가 다 써어 문드러져도 정

들은 그에 대해 분명히 경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도 적절한 절차와 내용을 통해야 함에도 누구 하나 바른 소리 못한 채, 대중의 소리에 묻혀 끌려갈 따름이었다. 과연 탄핵의 과정자체에 정당한 의혹이 없을까? 때로는 그 무능함과 안일함에 대해 당연히 탄핵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얼마나 그것이 순서와 절차를 넘어서는 대중의 감정으로 처리한 것인지, 나의 조국은 법도 없는 나라처럼 느껴졌다. 지독한 감정의 열기가 얼마나 질서와 법을 조율하게 만드는 야만의 세월로 흘러 가게 하는지, 죄인으로 치부되어지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인격과는 상관없는 감정풀이가 됨을 보았다. 조국에 대한 그 감감함과

멀게 인기 없는, 게다가 측근들이 줄줄이 처세술에 입각해서 행하는 것을 보면 어느 누구를 닮았는 문제도 아닌 듯 보여진다. 지도자로서의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모든 지도자는 명확한 진리, 혹은 생사에 대한 분명한 결단과 결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과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과 무엇보다 나라를 부강하게 할 장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던 많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실망시켰다. 칼끝이 자신을 향해 더욱 깊숙이 찌어오르는데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흥정을 하려 했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그저 아랫사람들을 시켜서 큰소리로 가끔 위협하는 흥정행위들을 하였다. 다 떨어질 수 있다고, 자신들

하면서, 정치에 대해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에서 더 온전한 일은 없을까를 생각해본다. 비판하는 것에만 멈추지 말고, 대안이 없을까 하는 것이다. 문득 소원이 생긴다. 실제로 참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품은 자, 진리에 목숨을 내어드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그런 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비판이 아닌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교회에 종파 하나 세우는데도 자기교회에 지역위원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종파가 세워진다. 그러나 그런 힘이 없으면 종파를 세울 수가 없다. 종파가 세워질 수 없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법이 있을지라도 유용할 수 있는데 그 유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고 가지는 사람이 있을 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이승만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 되었는데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신앙적인 견지에서 그가 국가를 위해 결정적으로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토렌스에서 이희은

A: 좋은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문창국씨가 쓴 '역사 읽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을 때 많은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세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성한 힘을 가진 일본을 대항하려면 힘으로 맞붙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홍범도 장군, 하와이의 박용만, 연해주 이흥우 같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주와 연해주를 근거지로 삼아 무력투쟁으로 일제와 싸우는 무장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둘째는 이승만 같은 사람은 외교를 통한 조국의 독립을 꾀했습니다. 국제정세에 밝은 그는 한국의 현실을 잘 알았습니다. 무력으로 일제를 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생각하여 독립은 우리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국제정세의 변화가 오면 기회가 온다고 판단하여 강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한국의 공산화 방지

대국인 미국을 설득하여 독립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외국의 지도자들과 조선독립을 위해 외교에 힘을 썼습니다.

셋째는 무력으로 입술의 외교로도 약하고 국민들이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믿고 교육으로 정신을 일깨우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물산을 장려하여 힘이 생기면 독립으로 이끌어준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을 통해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의 역량을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이 김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독립의 꿈은 멀고 세월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이승만은 소년시절에 서양의술을 통해 그의 눈병을 고침 받은 후 서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배재학당에서 서양사상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미국의 독립전쟁, 프랑스 혁명, 영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는 배재학당에서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를 배웠고 그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내 나라와 내 영혼을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후에 6년간 감옥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열심히 읽고 영어사전을 다 외우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주위의 동료 죄수들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신앙심이 깊어져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기까지 했고 감옥 안에서 40명의 죄수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후에 그가 미국 유학을 갔고 그가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미국처럼 정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주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한 것도 그의 신앙심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운 후에도 그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철저히 인식하여 미국이 떠나지 못하도록 외교를 통해 필사적으로 붙잡았을 것입니다. 6.25전쟁 휴전협상 때 그가 한미상호 방위조약에 그토록 매달린 이유는 한국 주변이 공산권이 중국, 소련에 둘러싸여 우리는 미국이 없이는 곧바로 공산화 될 수 있음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미군철수는 한국의 공산화이기에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굳게 체결하여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입니다. 북한을 추종하는 좌파 세력이 유독 이승만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 핵심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국을 붙잡았고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통해 한국이 공산화가 안 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간사 제자들교회)

세상에 대한 신앙의 한결같은 열심, 변화, 대안

치적인 발언과 논리에 대해서 속과 겉이 다르게 침묵해야 하는가? 과연 예수는 우리의 정치적 관심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개인신앙 외에, 특별히 국가와 민족의 일에 대해 입과 눈을 닫고 사는 것이 미덕이라면, 과거 삼일운동 같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삼일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없이는 전혀 발생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정치적인 색깔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자기 신앙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인으로 세워져도 여전히 성도의 한사람으로서 교회로 가서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담임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그렇게 많이 쓰임 받는 것을 본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한국적 사고방식은 복음주의의 내의 성령중심의 부흥운동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정치를 개입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자는 무브먼트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무관심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영적도양으로 작용되었던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영적인 바탕이 여기서 출발하기에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게 된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무엇이든 시작점이 되는 뿌리가 중요하네, 말씀과 기도중심의 영혼의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인 삶에 문제에 대한 영적 무감각과 불의에 대한 침묵에 머문다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해석과 전체

물론 정치에 개입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정치를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학에 없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연민이 가슴을 헤집고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다.

얼마 전 구속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대통령이었지만, 그럼에도 한때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았는가?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처음부터 목표를 정한 수사와 마치 드라마 속 대사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며 연일 검찰발 카더라 통신에 대해 분노할 법한데, 진영의 논리 안에서 참된 의문은 존재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

어느 노숙한 신문기자 쓴 칼럼을 인용해보면, '현 정권 중종 세력이나 검찰은 세상을 '무균의 증류수'로 이해하는 것 같다. 종략... 머리에서 발끝까지 작심하고 훔으면 누구든 비리 인물이나 파렴치범으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른다'고 필설 한다. 해석의 문제이며, 해석은 반드시 전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전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대한 시원한 복수극이 될 때, 저들은 목표성취의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속이 너무 상하게 한다.

흥정과 처세술의 끝

금번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첫째는 교회 장로에 대한 기대감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겠는가? 기도의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장로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기대감에 대해 어찌하였는가? 속이 상할 따름이다. 다른 한 가지는 오래전 한국의 광우병 소동기운데 그분이 보여준 자세와 태도였다. 미국 현지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던 마음은 참 답했다. 저렇게 무능하고 처세술로 무장한 듯 애매모호한 자세를 가진 분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 지도자의 품격에 따라 모여드는 사람들도 그 모형을 추종한다했는데, 그 끝의 모습에 대해 무척 염려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이 아는 것이 있다는 듯 짐짓 여기까지만 하면 안되겠느냐? 는 사인을 계속 자신의 적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 감옥행 터널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무지의 증거였다.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이상과 가치, 더 나아가 처세술로 장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지도자의 품격에 이를 수는 없다는 사상이 없었던 것이다. 반대로 저들 진영은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는 자신들만의 사상이 있었던 것이다.

진리와 삶이 한결같은

정치인으로서 성도로서 열정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의 분명함이 있다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담대하게 살 것이다. 눈치 볼 이유가 없다. 육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이 땅의 일들을 넘어서서 영과 육을 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고나면 배워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과연 예수는 자기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인가를 묻고 싶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자신의 담임목사와 교회 앞에 나아와서 기도를 받는다. 대통령 선서할 때 같이 기도한다. 더불어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옳은 길로만 행하도록 합력하여 기도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께 와서 안수 받고 가면 막 웃기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안수를 받고 갔기 때문에 당선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다는 그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비판에서 대안으로

최근의 두 전직 대통령의 일로 인해 상한 마음과 생각들을 정리

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 어떤 일을 아는 것, 그것을 적용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교회 안에서 다니엘, 요셉, 에스터 같은 정치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교회에서 그런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 이런 정치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다. 그들에게 뭘 해도 열심히 하라고 한다.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더라도 열심히 하고 그저 어떤 일을 하던 몸을 불태우면서 하고, 평생에 그냥 적당히 슬금슬금 어영부영 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음을 알리고 권면한다. 가난해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보다 잘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성도의 삶도 중요하지 않을까.

davidnjeon@yahoo.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4면에서 계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성막의 용도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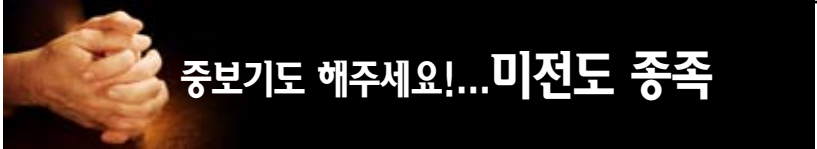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영혼을 구원하는 집을 지으라는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교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영혼구원 즉 사람에게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투자해야 할 세 가지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영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이 영원합니다. 셋째는 사람의 영혼이 영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어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사람의 영혼에 투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해야 할 사역,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의 목적, 우리가 투자해야 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건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의 집을 마무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예루칼라(YERUKALA)



예루칼라족은 남부 인도의 중앙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평원과 언덕에 살고 있으며, 주로 고디바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예루칼라족은 남부 인도의 중앙에 위치한 안드라 프라데시 주의 평원과 언덕에 살고 있으며, 주로 고디바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삶의 모습 예루칼라족은 편하게 살려 하고

천성적으로 게을러서 결코 부유한 농부가 될 수는 없었다. 과거에 그들은 숲속에서 살았으며 사냥을 하고 식물을 채집하는 숲속에서의 경제여건에 만족했으나 1878년, 영국정부에 의해서 산림의 생산물 판매가 엄격히 규제됐기 때문에 평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한다. 일부는 매트, 바구니, 밧줄을 만들어 팔고, 또 다른 이들은 마을의 경비원으로 고용되기도 한다. 때때로 여자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구걸하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그들의 사회적 행위 규범은 집단에 의해 강요되고 그래서 처벌은 가혹하다. 예를 들면 피고인의 손가락을 묶는 기물에 담그거나 불이 타오르는 침대를 걷게 해서, 만약 그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으면 그는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큰 배우자를 구할 수 있고 남편이 출소하는 날 본래의 남편에게 돌아와야 한다. 신앙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 예루칼라족은 우주의 수호자인 비시누를 숭배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백악관 성경 열람...8쪽짜리 교재로 매주 60-90분 공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부 각료들은 매주 백악관에서 성경공부 모임과 기도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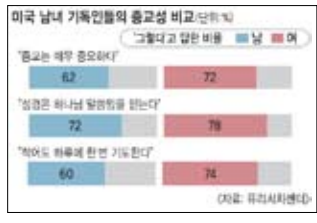
최근 이들 모임에서 진행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영국 BBC는 지난 8일 미국 의회 선교회 창립자이자 백악관 성경공부 인도자 랄프 드롤링거(63) 목사와의 인터뷰를 게재했다.

드롤링거 목사가 인도하는 성경공부는 매주 60분에서 90분쯤 소요된다. 성경공부를 마친 뒤에는 드롤링거 목사와 신앙 상담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드롤링거 목사는 "각료들의 일정이 바빠 매주 전원 참석은 어렵지만 가능한 사람들은 꼭 참석한다"고 말했다. 성경공부 자료에는 성경 본문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도 실려 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성별에 따른 종교 성'을 주제로 한 자체 조사(2014년 9월)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여성이 기독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성별에 따른 종교 성'을 주제로 한 자체 조사(2014년 9월) 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여성이 기독 남성보다 더 종교적인 이유'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분석했다.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 찬양 틀고 예수 영접

지난 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baptist신학대 강당.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이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트'를 은은하게 불렀다. 객석에선 허밍으로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이들도 있었다.



극동방송어린이합창단은 1991년 창단된 찬양선교단이다. 해마다 미주 순회공연을 비롯해 국내외 모든 공연을 자비량으로 다니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합창단은 오는 15일까지 미국 중·동부를 돌며 순회공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은 순회 일정 첫 무대였다. 성황리에 무대를 마친 합창단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칼 베이더스 목사, 교회에 지침

예배당이나 교육시설 등을 새로 지을 때 교회 내부에서 나올 법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칼 베이더스(미국 코너스톤크리스천웨슬리안교회·사진) 목사는 11일 '작은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당부-당신이 받는 것보다 더 쓰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미국 기독교인론 크리스천네티우데이에 기고했다.

칼 베이더스 목사는 "과다 지출은 '굴건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관리 소홀일 뿐"이라며 "교회 재정 문제에서 굳건한 신앙이란 지출과 수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베이더스 목사는 "과다 지출은 '굴건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관리 소홀일 뿐"이라며 "교회 재정 문제에서 굳건한 신앙이란 지출과 수입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라이언 하원의장 '주말이빠 되기 싫어' 정계은퇴선언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일한다면 아이들에게 저는 영영 주말 아빠(weekend dad)로만 남겠지요. 그렇게 들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려 합니다."



라이언은 2012년 대선에서 겨우 42세 나이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다. 이번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건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이다. 라이언은 16세 무렵 변호사였던 아버지를 심장마비로 잃었다.

퓨리서치센터, 남녀 종교성 사회학적 분석

리의 의지를 시험할 정도로 어려서라면 이러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추가적인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공습의 결과를 놓고 양측 발표가 엇갈린다. 미국 등은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만을 효과적으로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리아는 "미사일 대부분을 방공망으로 요격해 피해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CNN방송은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됐다"면서 강대국 간 대결이 세계적인 군사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한 덴 캐티 회장이 말하는 성경적 경영

미국 47개주에 2200개의 점포를 가진 패스트푸드 기업 칩 필 에이(Chick-fil-A). 한 국엔 아직 지점이 없지만 미국에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에 이어 3대 패스트푸드 업체로 유명하다.



가게 패스트푸드 기업을 이끌고 있는 덴 캐티(65) 회장이 한국 진출을 위한 시장 조사차 최근 방한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컨심턴호텔에서 만난 캐티 회장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성경을 꺼냈다.

"이 낡은 성경은 제겐 신앙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죠. 설립자인 아버지 트루트 캐티가 강조한 것도 성경대로 경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엔 어떤 경제 교과서보다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경영자들에게 필독서죠."

지난해 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의 회장이 강조한 것은 결국 성경적 삶이었다. '신실한 청지기가 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자'는 기치를 내건 칩 필 에이가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 일이다.

"시리아 사태 대리전 양상...1차 대전 직전과 유사"

미국이 지난 14일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공습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가 '신냉전' 체제 아래 대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3국이 시리아 정권뿐만 아니라 그 후원자인 러시아, 이란에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시리아를 비롯한 현재 중동 정세가 마치 1차대전 직전의 동유럽과 유사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가 위해 미사일 105발을 발사하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직후 "미군에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역량과 관련된 타격에 정밀 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 행동의 목적은 화학무기 생산, 사용, 확산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을 필두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시리아 정부가 위해 미사일 105발을 발사하는 군사행동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습 직후 "미군에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의 화학무기 역량과 관련된 타격에 정밀 타격을 시작하라고 명령했다"면서 "우리 행동의 목적은 화학무기 생산, 사용, 확산에 맞서 강력한 억지력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나라의 공습에 시리아와 그 동맹국들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서방의 공습 직후 트위터 계정에 "선한 영혼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글을 올려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출장 중에도 예배를 드린다.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한 뒤 이영훈 담임목사와 점심을 함께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중세 교회의 역사를 살피면서, 왜 이 시기를 어둠에 잠긴 영적 암흑시대라고 부르는지 깨닫게 되는 사건들을 계속 만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관계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기독교는 동방에서 시작된 종교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떠올릴 수 있다. 성령 강림과 함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이스라엘의 본토인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다.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보면, 이 지경은 동방에 속한 지역이다.

그 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의 전도여행 역시 유럽으로 향하기 전까지 동방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루살렘을 중심하던 교회는 안디옥을 거점으로 삼게 되었고, 먼저 소아시아 지역을 공략한 것이다. 초대 교회사에 주로 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의 활동 거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 논쟁거리가 되었던 신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모였던 여러 공의회에서 그들의 사상으로 인하여 정통 교리가 세워질 수 있었으며, 그들이 남긴 글들은 향후 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분명 교회는 하나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땅 끝까지" 라는 목적으로 복음이 서방까지 전파된 결과,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데 향후 마태복음 16장을 근거로 수위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매우 강력한 로마교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로마교회가 왜 자신들의 정통성과 수위권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을까? 그들은 항상 동방교회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로마교회가 동방교회를 일방적으로 의식한 것이 아니다. 동방교회 역시 서방의 로마교회 수위권 주장에 대하여 매우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금이 간 사이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제2차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그 결과 삼부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려는 이단을 정죄하고,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양성이 완전히 계신 분"으로 결정을 내리며, 니케아 신조를 공포하였다. 나아가서 삼위일체 교회를 최종적으로 공포하였다. 교회사에서 매우 중요한 모임이었다.

그런데 이 공의회에서 규정된 한 법령의 문구로 인하여 향후 동방교회와 로마교회 사이에 갈등의 문이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리게 되었다. 법령 3조에,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는 로마 주교에 다음가는 명예상의 수위권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도시는 새로운 로마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법령은 서방의 로마교회의 주교가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주교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뒤에 붙어있는 일종의 조건이 문제가 된 것이다.

이 법령이 의도한 바는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위상이 성경적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의 연계를 근거로 우위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였기에 우위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한 것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였다. 그는 391년에 로마 황제 그라티아누스 1세로부터 동로마 제

국에 대한 권한을 임명받았다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사망 뒤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를 동시에 통치하였다.

그는 379년부터 395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채택한 업적을 이룬 장본인으로 교회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이유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의 연계를 근거로 우위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였기에 우위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한 것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였다. 그는 391년에 로마 황제 그라티아누스 1세로부터 동로마 제

이유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의 연계를 근거로 우위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였기에 우위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한 것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였다. 그는 391년에 로마 황제 그라티아누스 1세로부터 동로마 제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결국 1054년에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다. 동서교회의 대분열(The Great Schism)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훗날 정교회와 가톨릭교회로 발전한 두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분열의 원인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우위권을 중심으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지속되었던 갈등이 결정적인 것이었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었다. 또한 갑작스럽게 갈라선 것이 아니었다. 쉽게 봉합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동방과 서방을 하나의 교회로 가능하게 하였던 것은 복음이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의 확장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동방과 서방은 출발점부터 서로 상이한 점이 대부분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려면 언어이다. 동방은 헬라어를 사용하였으며, 서방은 라틴어를 사용하였다. 언어의 차이만 그들의 문화와 철학, 그리고 사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을 시사한다.

헬레니즘 문화라는 독특한 영향권 아래서 기독교가 태어났고, 그 위에 동방교회의 전통이 쌓여져 발전하였다는 것만 인식하여도, 게르만족의 이동 이후 급속한 변화가 생긴 독특한 정치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꽃을 피운 서방 교회와 비교할 때 서로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서방교회는 로마의 교황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고, 나머지 교회를 그 아래 구축하는 일종의 피라미드 조직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공의회를 통해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 신앙적 전통을 지키는 동시에, 각 지역과 민족에 속한 교회를 독립성을 인정하려는 수용적인 태도를 지녔다. 심지어 복음이 전파된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보자. 9세기 중반, 불가리아가 선교사의 열정적인 사역의 열매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다. 놀라운 것은 선교사 중에 한명인 키릴이 그들의 방언을 알파벳 문자로 개발한 슬라브어가 슬라브족의 공식문자가 되었는데, 향후 슬라브족 전체 교회의 언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우리는 동방과 서방이 달랐지만, 복음의 힘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의 몸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의 몸을 이루고 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서, 서로 근본적으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각각 다른 점을 덮어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순간, 주님의 몸이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tcho@yahoo.com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9)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하나였던 교회가 정치적 인간적 힘겨루기로 동, 서 교회로 분열 사도좌 개념 공식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법령 3조 근거 해석

국에 대한 권한을 임명받았다가,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발렌티니아누스 2세의 사망 뒤에는 동로마와 서로마를 동시에 통치하였다.

그는 379년부터 395년까지 재위하는 동안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채택한 업적을 이룬 장본인으로 교회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긴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이유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베드로와의 연계를 근거로 우위권을 주장하는 로마교회의 주장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의 수도에 위치하였기에 우위권을 인정한다는 표현이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소집한 것은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였다. 그는 391년에 로마 황제 그라티아누스 1세로부터 동로마 제

심화되는 긴장감

451년, 콘스탄티노플 인근에 있는 칼케돈에서 제 4차 공의회가 모였다. 이 모임

한 것이었다.

그 결과, 칼케돈 공의회는 로마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5교구로 나누는 제도를 수용하게 되었다. 동방에 속한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리고 예루살렘 총 4개였으며, 서방은 로마교회 단 하나였다. 겉으로는 평화스럽게 결말을 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땅끝까지" 전파는 다른 지체가 한 몸 이루는 불편의 시작 언어 등 분열 원인 다양... '복음'만이 하나로 묶는 힘 가져

통치를 마지막으로 동로마와 서로마는 영원히 분리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안다면, 테오도시우스가 콘스탄티노플 주교의 위상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하여 로마교회가 침묵하지 않았다. 교회 역사의 첫 교황은 레오 1세(Leo I, 440-461)로서, 교황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활동했던 교황 다마스스 1세(Damasus I, 366-384) 역시 로마교회 감독의 우위권을 주장하기 위한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모였던 다음해인 382년, 로마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다. 로마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이 세

에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혼돈과 변함없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칼케돈 신조를 채택하였다. 이 역사적인 모임에서도, 로마교회와 동방교회와 갈등이 심화된 일이 벌어졌다. 시기적으로 로마교회는 이미 사도좌에 근거한 수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여온 바, 칼케돈 공의회에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세의 동일한 주장에 대하여 공식적인 답을 내려야 했다.

로마교회는 지속적으로 베드로의 계보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사도좌에 근거한 우위권을 주장하였지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모였을 때 28조를 승인받게

더욱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692년, 콘스탄티노플에 소재한 황제의 궁전 대회의실에서 공의회가 열렸다. 동방제국의 황제가 주도한 이 모임에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법령 3조와 칼케돈 공의회 법령 38조를 재확인함으로써,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의 위상이 로마교회의 총대주교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다짐하였다. 로마교회는 이러한 동방교회의 행보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로마교회는 지금까지도 692년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수위권을 두고 갈등과 긴장 속에 동행하던 동방교회와 로마교회는 독자의 길을 선택하여 간 것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성경도 신앙(50) 국가, 정치, 교회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2) 보스턴: 종말론적인 신앙
 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환경을 이해하려고 했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에서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신대륙으로 이주하면서 나그네처럼 생활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필그림 파더스(Pilgrim Fathers)로 불리었는데, 이 필그림들의 필그림들은 양심의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를 소원함으로 미국으로 이민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존 배일(John Bale), 존 폭스(John Foxe), 토마스 브라이트맨(Thomas Brightman, 1562-1607)의 종말 사상이 영국 청교도에 영향을 끼쳤고 이런 종말론 신앙 때문에 이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브라이트맨이 1607년에 쓴 "요한계시록 강해"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교회 역사와 연관시켜서 설명하면서 영국 교회를 차지도 받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유하였다. 영국 교회가 회개하며 신앙적 열정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배푸시는 복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철저한 개혁과 회개를 촉구하였다.

브라이트맨의 경고는 1620년대에 이르러 현실화 되었다. 그 당시 방직 산업이 몰락하여 많은 방직공들이 직장을 잃어 굶주리게 되었고, 의복 상인들은 직물을 구할 수 없게 되었으며, 농부들은 소작료를 지불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거기에다 1625년 전염병이 런던에 나돌고 찰스 1세의 등극과 함께 의회가 무시되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청교도의 신앙의 대부분의 핵심이 되는 칼빈주의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을 강조하는 알미니우스주의가 만연하였다.

1629년 청교도들이 영국 내의 이단과 죄악을 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간주하였고 장로교 청교도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의회가 찰스 1세에 의해 해산되었고, 독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천주교도의 침략으로 여러 곳이 점령당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로마천주교도들이 위그노의 중심지인 라 로셴을 함락시키며 신실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학살당했다.

청교도들은 이런 사건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영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징조라고 해석하였다. 존 코튼(John Cotton, 1584-1652)은 영국의 비판적인 상황에 대하여, 교회 개혁을 지체하는 영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라고 보았다. 그는 1630년 윈스롭을 비롯한 비분리주의자들이 신대륙으로 떠날 때 행한 송별 설교에서, 신대륙 이민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에드워드 존슨(Edward Johnson)도 신대륙으로 이민하게 된 시기는 "영국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독교 신앙이 쇠하여져 있을 바로 그때"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종말론적 긴급성으로 상황을 직시하였다
 청교도의 종말론적인 관심은 존 윈스롭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윈스롭은 1629년 그의 부인 마가렛(Margaret)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였고 위협하셨고 징계하셨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 더 악화되

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서 유럽의 모든 교회를 치셨고, 심지어 죽음을 이룰지도 모르는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약한 길에서 떠나거나 스스로 낮추지 않고 있고,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잔을 우리를 향해서 쏟으려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은 쓴 잔을 모조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하나님이 멸치 않을 장래에 아주 무서운 고난의 잔을 이 땅에 쏟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청교도들은 잉글랜드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교회가 개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국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플리머스 분리주의자들은 양심의 자유와 경제적 풍요 이유로 미국행 종말론적 이상이 비분리주의적 청교도들을 신대륙으로 이민하게 해 기독교 사랑 실천과 거룩한 공동체 실현 및 질서 유지 되는 도시로

교회를 개혁하는 대신에 오히려 이런 개혁적인 운동을 방해하였다.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였고, 사회 상황은 아주 절망적으로 변해갔다. 그 결과 학문과 종교의 기초까지 심히 부패해가는 모습이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악과 방탕에 빠져 부패하였으며 전적으로 패륜적이 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윈스롭 일행은 영국교회를 떠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남아서 개혁 운동을 전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다. 영국에 남아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영국을 떠나면 분리주의자가 되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들은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분리하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했던 묘안은 영국 교회를 정죄하지 않고 영국을 떠나는 것이었다. 곧 영국 국교회의 머리인 왕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왕의 윤허를 얻기 위해 1628년 이를 '메사추세츠만 회사(Massachusetts Bay Company)를 정한 후 신대륙 이민을 추진하였다. 이는 그들이 이주하려는 신대륙의 뉴잉글랜드는 지금의 보스턴 북동쪽 부분과 메인주에 해당하는 지역인 메사추세츠만 식민지를 통괄하는 곳이었다.

윈스롭 일행의 이런 종말론적 확신은 뉴잉글랜드에 세우고자 하였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정신적, 신앙적 배경이 되었다. 윈스롭은 영국이 처한 비참한 상황이 사회적인 부패와 신앙적인 타락에서 연유하였다고 확신하였다. 그는 1622년 영국 사회를 '죄악의 땅'이라고 불렀고, 1624년 영국교회 안에 "매일 교황주의자들이 증가하며, 추악하고 병어리 같은 성직자들이 허다하고, '공동 기도서'가 제시하는 예배의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문이 깊은 여러 목사들이 정직당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재와 불을

지필 수 있는 장작이 부족하며, 말 도둑이 많고 불공정하게 세금이 책정되고, 재판이 지연되며, 농부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629년에는 "영국 정부가 시장 질서에 대하여 방임함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비경제적인 농업정책으로 시골과 도시에는 부랑자와 거지들이 득실거리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함으로 종말적 긴급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다) '언덕 위의 도시 건설(A City Upon a Hill)'의 이상향을 동경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종교적 부패를 일소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신대륙에 이민하여 개혁 운동을 전개함으로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개혁 운동을 통해 사회의 중심부에 교회와 정부가 자리하고, 그 안에서 정착된 각자가 집과 정원을 가꾸고, 가족을 양육하고, 개은 자가 배척을 당하고, 성실한 자가 잘 살며, 사회의 모든 구성구석에서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고,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예배가 드려지고, 정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종말론적인 이상이 비분리주의적 청

교도들을 신대륙으로 이민하게 하였다. 윈스롭은 이상적인 사회는 세 가지 근본적이고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늘 가지고 있던 사상 요소는 기독교 사랑의 실천과 거룩한 공동체의 실현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경제적 번성이나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던 플리머스의 필그림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가 개혁되고 건전한 사회가 유지되기를 원했다.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중립적인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현대의 자유주의자들과는 달리 참된 개혁신앙에 기초한 거룩한 국가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라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다.

윈스롭 일행은 당시 영국에서 윌리엄 로드(William Laud)의 박해로 2만명 이상이 이민하였다. 이민자의 대부분은 중산층으로서 경제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진 계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윈스롭은 1629년 그의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럽의 다른 모든 나라들과 교회들은 이미 황폐화되고 있다. 주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우리를 향하여 눈살을 찌푸리시며, 두렵게 위협하십니다. 하나님이 널리 임할 심판으로부터 택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을 피난처로 마련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누가 알겠는가? 교회가 보다 나은 사역을 행할 수 있으며, 성전을 재건하여 교회에 영적인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도피처가 이 광야밖에는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아는가?"

윈스롭은 뉴잉글랜드를 종말론적인 이상을 실현할 거룩한 땅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과 종교적 이상향의 건설은 신대륙 이민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기대치를 넘는 사랑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보려면 사찰집사가 행복하게 섬기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행복은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리라. 우리가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는 사람들과 잘 지낸다면 우리 그 안에서 가슴 차오르는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거다.

사람을 제일 빨리 변화시키는 것은 기대치를 넘는 사랑을 하는 것이리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녀는 엘리에셀 일행뿐 아니라 그들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었다. 그런데 낙타가 한 번에 얼마큼의 물을 마시냐면 낙타는 보통 8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한다. 만약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면 그녀는 적어도 40 바가지의 물을 퍼 올리는 엄청난 수고를 했으리라. 40 바가지의 물을 퍼 올리는 시간은 약 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반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예뻐하면 성경에 다 기록되었을까... 기대치를 넘는 사랑이다.

현 시대의 사람들은 모두 차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같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다른 병들도 다 그렇겠지만 차통을 앓는 사람은 온종일 쿡쿡 찌시는 통증에 다른 일들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두 자기 일에 치여서 몸에 남덩이가 있는 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손해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알뜰하고 웅졸해져 간다. 그러나 우리는 안하던 일을 해볼 때 그만큼 사람이 커져서 않을까. 내 어떤 틀을 깨고 내가 해보지 않던 일들을 자주 해볼 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 일은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이 뻗어 있는 이 기쁨과 소유욕을 뽑아내는 작업과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힘은 사랑이리라.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실력이다. 그런 우리 삶의 실력은 입으로가 아닌 삶의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알 수 있을까? 만약 정말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진리를 안다면 그건 분명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이리라. 왜냐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나...

우리는 아이들을 나무랄 때도 누구와 비교해서 야단을 친다. 그런 비교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공이라는 고지에 가 있어도 늘 남보다 더 잘 읽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알기 위해 모든 것을 움켜쥐고 더 얹어져도 계속 달리기를 쉬지 못한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상해하고 자기 성취감에 취해 인생을 살아야 살맛이 난다.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기쁨으로 가슴을 채우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벅찬 마음이 가슴에 차오르지 않을까.

우리는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믿지만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은 잘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상은 내 힘으로 몸부림치며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다. 우리는 나중에 임할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나라를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기쁘고 충만하고 거룩하고... 그러려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주님의 기대치 넘는 사랑을 되새김질 하며 나도 그런 기대치가 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리라 흥내내 보며 그 좋은 주님을 따라 살리라.

changsamo1020@gmail.com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Merry Christmas
성탄 축하예배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에녹의 신앙의 특징은 노아홍수 심판 직전의 사악한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동행이란 “어떤 목적지를 함께 가는 동반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동반자가 있고, 불편한 동반자가 있습니다. 즐거운 동반자가 되려면 1)뜻이 일치해야하고 2)도덕적으로 조화가 되어야 하고 3)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

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라고 하였습니다. 뜻이 맞지 아니하면 동행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면 반드시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을 일으킨 이반 로브츠는 광산촌에서 아버지를 도와 어릴 때부터 광부

일을 해오면서 술과 마약과 폭언으로 찌들린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 16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주여! 당신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10년 만에 응답되어 웨일즈엔 이반 로브츠를 통해 거대한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고 영국에서 200만이 넘는 회심자가 생기고 그 불길이 온 세계로 번져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반 로브츠 같은 성도를 찾아 하나님은 이 시대의 대부흥을 일으키

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사람은 또한 하나님과 도덕적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미국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때에 한 프로 골퍼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골퍼가 마친 후 친구들이 대통령과 골퍼하니 얼마나 좋았느냐고 묻자 프로 골퍼는 “오늘 골퍼는 내 생애 최악의 골퍼였다”고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너희들도 알다시피 나는 골퍼하다가 잘 안 되면 욱도 좀하고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서 다음 코스에 잘되는 데, 이번엔 대통령만 나오신 게 아니라 빌리 그레함 목사님까지 나와서 함께 골프를 쳤으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오늘 죽을 맛이 있어...” 하며 툭툭 거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분은 대통령보다 높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격에 맞아야 즐거운 동행이 되는 것이

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날마다 보혈로 씻어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에 있어 중요한 세 번째 부분이 의사소통입니다. 부부생활 가운데 뜻을 맞추는 것과 도덕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소통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간에 대화의 깊이가 깊어지면 46%란 말을 어느 설문조사에서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바로 한 지붕아래 살면서 별개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친밀한 교제, 깊은 사랑의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이미 별거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주님과 동행에서 친밀한 기도, 감격과 사랑의 생활이 사라지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과 별 거생활에 들어간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생활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깊은 기도,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친밀한 기도생활을 통해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살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고도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간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아! 나는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좋구나! 너와 얘기하다보니 너무 많이 왔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 하시고는 산채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을 너무 기쁘시게 하니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신 것입니다. 주님과 행복한 대화, 친밀한 기도생활에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여러분! 이런 동행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추고, 성결하게 살아가며, 주님과 친밀한 기도생활에 성공하므로 주님과 동행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후퇴, 동성애 대처가 이슈”

UMC한인총회 제44회 총회, “복음으로 희망을..”

연합감리교회(UMC) 한인총회 제44회 총회가 “복음으로 희망을 여는 한인연합감리교회(렘29:11)”라는 주제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뉴저지 아를라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됐다.



UMC한인총회 제44회 총회 첫날 개회예배에서 김용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이번 총회의 이슈는 한인교회의 전반적인 후퇴와 동성애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UMC는 내년 2월에 열리는 임시 특별총회를 통해 동성애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미국장로교(PCUSA)의 사례를 염려하며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한인교회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태 총회장은 인사를 통해 “인간의 성(Human Sexuality) 논쟁으로 야기된 교단의 여러 변화는 우리 한인총회 산하 한인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더욱이 2019년 교단의 ‘특별총회’와 2020년 ‘총회’를 통해 내려질 결정들은 우리 한인 목회자들과 한인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하고 “이렇게 혼돈의 어두움이 엄습하는 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 한인총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9일 오후 7시30분 열린 개회예배는 사회 윤국진 목사(총무), 개회인사 김광태 목사(총회장), 인사 뉴저지연회 존 손 감독, 기도 이용연 목사(동북부지역 회장), 찬양 뉴저지연합교회, 설교 김용민 목사(서부지역 한인선교구 디렉터, “교회 역사는 밀알의 역사”, 요12:23-26), 헌금송 김용천과 김현지 성도, 헌금기도 김지나 감리사, 축도 박효성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스콘신연회 정희수 감독은 “연합감리교회 총감독회는 2016년 교단총회 이후 동성애 이슈로 인한 심각한 교단내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위해 열리는 2019년 2월 교단 특별총회를 위해 총감독회는 지역 연회별로 함께 기도하며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바로 지금이 기도의 영적 지도력이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

총회기간 중 열리는 저녁집회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됐다. 또 예배중 헌금은 뉴저지연회 선교프로젝트인 CUMAC, 이민자보호교회, 뉴저지연회 교회개혁 사역인 GNI를 각각 지원했다.

APTf(김일영, 김태준, 류재덕, 이철구, 임찬순, 정성호, 홍삼열, 류계환 목사)가 보고한 UMC 동성애 이슈에 따른 교단현황과 한인교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처방안에 따르면 △기존 그대로 △교단내 신학적 입장을 지켜낼 수 있는 공간 확보 △UMC 교단 내 또는 미국 안에 있는 복음주의적 진영과 연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 △교단이나 목회자의 이해관계보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우선시하는 커넥션 등이다.

한인총회는 “대안특별위원회(APTF, Alternative Plan Task Force)”를 구성해 교단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모색해왔다. 둘째 날은 APTF의 발표가 있었으며, 셋째 날은 한인총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소그룹 토의가 진행됐다.

APTf(김일영, 김태준, 류재덕, 이철구, 임찬순, 정성호, 홍삼열, 류계환 목사)가 보고한 UMC 동성애 이슈에 따른 교단현황과 한인교회에 미칠 영향 그리고 대처방안에 따르면 △기존 그대로 △교단내 신학적 입장을 지켜낼 수 있는 공간 확보 △UMC 교단 내 또는 미국 안에 있는 복음주의적 진영과 연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독자적인 그룹을 형성 △교단이나 목회자의 이해관계보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우선시하는 커넥션 등이다.

아울러 선교 배움과 나눔, 그리고 목회자 그룹(선교사, 차세대, 타인종목회, 한인목회)별 만남도 진행됐다. 이민한인교회와 연합감리교회의 전반적인 후퇴에 대해서 다루었다. 미국 안의 연합감리교회는 매일 350명 교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으며, 한인교회도 지난 10년간 100여개가 문을 닫았다. 이민 숫자가 줄어들고 있으며 한인교회의 중간 허리(성인출석 50-100) 교회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민 교회 전반의 상황이 교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들은 중형 교회로 서가는 반면에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

김광태 총회장은 “연합감리교회 총회 예산 감소와 미국 안에 있는 연합감리교인의 감소를 감안하여 볼 때 과연 연합감리교회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앞으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 회의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50년 후에는 교단이 생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가 주최한 리바이벌 코리아-한반도 정체성 회복 특별기도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리바이벌 코리아-한반도 정체성 회복 특별기도”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집회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회장 김희창 박사)는 지난 4월 14일 11시 영생장로교회(담임 김혜성 목사)에서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4월 “리바이벌 코리아-한반도 정체성 회복 특별기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1부는 최정학 부회장의 사회로 김기수 목사의 기도와 남가주목사장로총장단의 은혜로운 매달리 찬양이 있을 후 월드쉐어 미주 대표인 강태광 목사가 군복무 시절 이야기한 담은 설교(제목: “전지를 잃어버린 사람”)로 현대 신앙인들의 정황을 설교했다. 임화자 전도사의 헌금 특송이 있

의 사회로 김기수 목사의 기도와 남가주목사장로총장단의 은혜로운 매달리 찬양이 있을 후 월드쉐어 미주 대표인 강태광 목사가 군복무 시절 이야기한 담은 설교(제목: “전지를 잃어버린 사람”)로 현대 신앙인들의 정황을 설교했다. 임화자 전도사의 헌금 특송이 있

은 후 최훈일 원로목사의 기도와 김희창 목사가 “한반도 정체성 회복 특별기도”를 했다. 김희창 목사는 “전체는 하나님께 속했음과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 헬렐과 트너십의 회복을 강조하고 거지모습으로 돌아온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리바이벌 코리아”를 기원했다. 이어 2부 순서로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노세영 박사가 “창세기 1-11장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노 박사는 부부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로 풀이했다. 노 박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유혹, 부모 갈등의 유혹, 세대 간의 갈등을 ‘아이 엠 소리’로 풀어가야 하며 언어 차이 극복, 남녀 간의 차이 극복,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김태규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치고 3부 만찬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남가주지회)



갯스드림센터가 주관한 전도중심제자훈련 D3세미나에서 안창천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제자의 삶 살려면 훈련해야 한다” 갯스드림센터 주관 전도중심제자훈련D3 세미나

갯스드림센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D3평신도사역연구소 대표 안창천 목사를 초청 ‘전도중심제자훈련 D3 세미나’를 올림피아로교회(담임 정장수 목사) 소예배실에서 개최했다.

10일 오전 10시에 열린 첫날 세미나에서 안창천 목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교회인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성도들 한사람 한사람이 사역하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목사는 “성경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70대 이상 노인 훈련시켜 그들이 전도를 가르쳐야”며 “모든 교인들이 건강한 교인이 되게 해야 한다. 모든 교인이 사역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창천 목사는 “전도중심제자훈련 D3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전도 중심적 제자훈련시스템이다. 다시 말해서 전도중심제자훈련 D3를 중심으로 첫째, 정직 및 양육 둘째, 제자훈련 셋째, 사역훈련 넷째, 사역 후 보충훈련 다섯째, 전도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신, 즉 복음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 받게 된다. 이것을 믿는 것을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 한다. 죄 사함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기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날마다 죄 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쳐서 제자삼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즉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다. 재생산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캘리포니아, 독립운동에 큰 역할 담당”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99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기념식이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이사장 배국희) 주최로 13일 오후 5시 옥스퍼드팰레스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스티브 강(LA한인회 이사) 사회로 시작된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소프라노 황혜경이 미국국가와 애국가 불렀으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박영남 회장(광복회 미시남부지회)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역사를 보고한 뒤 배국희 이사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 김완중 LA총영사, 로라전

LA한인회장, 서영석 LA민주평통회장, 랄프안 선생(도산 안창호 선생 삼남)이 기념사를 했다. 랄프안 선생은 “임시정부를 조직한 애국지사들의 패기와 용기, 그리고 희망을 갖고 독립운동을 하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하고 독립할 것을 강하게 외쳤다.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당시 중국 상해는 작은 도시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시작은 작았지만 그 꿈은 매우 참대했다”며 “미국에서 망명정부가 세워질 때 개인적 생각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 한인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독립운동자금을 모았으며 흥사단을 통해 전달이 되었다. 그들의 노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크 김 변호사, 폴린 김, 도리스 펄먼 여사가 나서 독립운동가 후손의 회고의 시간과 해밀(랭과 리, 장구: 여준영, 북, 판소리: 김한

솔, 피아노, 인디언 플루트 하모니카: 최윤석) 공연을 가진 후 만찬의 시간으로 이어졌다. 배국희 이사장은 “1919년 3.1 독립만세 이후 같은 해 4월 13일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 정부였으며 27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탄압에 저항하고 국권회복과 독립을 위해 싸워온 망명정부였다”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독립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다. 독립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은 오늘 독립운동가 후손, 특별히 이제는 3세, 4세가 되는 이국 초기 이민자 후손들을 초청했다. 제99주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리는 이 행사가 여기 참석하신 동료 여러분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크게 혹은 작게 물결을 일으키며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목회자의 영성과 지적성장’ 세미나

독서운동으로 유명한 ‘Grace & Mercy’와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 공동주관으로 ‘목회자의 영성과 지적성장’ 주제의 세미나가 4월 22일(주) 오후 5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개최된다.

▲문의: nykacag@gmail.com

릴레이 홀 테마 콘서트

라이프라인미션 대표 유태웅 목사가 진행하는 찬양과 시, 토크와 힐링이 있는 ‘릴레이 홀 테마 콘서트’가 “주 예비하신 집”이라는 주제로 4월 28일(토)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톨아일랜드 이스트 매도우(2408 5th)에서 열린다.

▲문의: (917)921-3310

2018 교회연합 아이티선교

2018 교회연합 아이티선교가 7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6주 동안 포트 프린스 가나안에서 진행된다. 목회자는 현지 목회자 세미나와 청소년 리더십 세미나 및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선교팀들은 교회개척을 위한 전도, 교회 주일학교 양육, 고아원, 교회대학 남아 청소년 축구대회, 한미 청소년 리더십훈련, 교회건축, 진료소 건축 등을 진행한다.

▲문의: (718)490-4833, (201)925-5272, 815-9254, (908)217-6225

북미원주민 단기선교

북미원주민선교회(NAMA, 회장 이재봉 목사)가 주최하고 뉴욕교회와 뉴욕목사회가 후원하는 북미원주민 단기 선교가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다.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가할 수 있으며 선교지는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건, 올레곤은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일 오후 6시 6주간에 걸쳐 뉴욕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646)763-4211/김기호 목사, (917)608-1075/함성은 목사

제 3회 어버이날 맞이 원로목회자 초청예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KACWA, 회장 목사)가 주최하는 제 3회 어버이날 맞이 원로목회자 초청예배가 5월 14일(월) 오전 10시30분 뉴저지순복음교회(담임 이정환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201)952-0688, (718)926-5599

제 2회 영생장학생 선발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가 2018 제 2회 영생장학생을 선발한다. 장학금 종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장학금 △동부개혁신학교 장학금 △영생 다음세대 지도자 장학금 △영생 일반장학금 △영생 디모데 장학금 △영생교인 신학생 장학금 등 6개 종류로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시상식은 8월 8일에 열린다.

▲문의: (714)313-7223

이노비, 장애아 위한 무료 음악교육 시작

이노비가 4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할렘 노스사이드 센터(1301 5th Ave, New York)의 장애인 어린이를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1시간씩 2달여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5-10세 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합창 클래스를 준비했다. 이 프로그램은 윌리엄 & 문자 오솔렉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현재 맨해튼음대 박사과정 중에 있는 피아니스트 안가영씨가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다. 안씨는 그동안 이노비에서 음악감독을 맡아 수년째 꾸준히 봉사해왔다. 노스사이드센터는 할렘에서 오랫동안 발달장애, 자폐, 언어장애 등을 가진 어린이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문의: (212)239-4438, en-obinc@gmail.com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 성황

뉴욕교회협 뉴욕목사회 공동주최, 강사 유석영 목사

뉴욕교회협(회장 이만호 목사)이 주관하고 뉴욕목사회(회장 문석호 목사)가 후원한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가 지난 11일과 12일 유석영 목사를 강사로 개최됐다. 첫날은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렸으나 참가자가 많아 둘째 날은 효신장로교회로 장소를 변경했다.

첫날 강사 유석영 목사(대전 로고스침례교회 담임)는 “성경을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줘 본문의 의도를 깨닫게 하고 결국 설교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된다”며 성경해석의 4가지 방법인 ①술(전체 구조, 권, 맥, 장) ②나무(부분 구조, 단락, 절, 단) ③원목자 관점(1차 저자와 1차 독자) ④문법적 해석에 대해 설명했다.

유석영 목사의 이번 세미나는 ‘한눈에 보는 구약관용 및 요한계시록’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게시물은 강의하지 못하고 차후 세미나를 약속했다.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에서 강사 유석영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유석영 목사는 한국 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고교 영어교사로 15년간 근무했으며 미션스쿨이었던 고교 교장의 명(?)에 의해 채용 운영을 맡아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문봉주 장로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예실 사모의 “어 성경이 읽어지네”부터 각 성경 읽기 세미나와 자격증을 받고 결국 신학교에 입학해 침례신학대학원(M. Div), 종신대 목회대학원, 백석

대 박사과정(Th. D) 중에 있다. 유 목사는 6년전 밴쿠버를 시작으로 해외에서 성경세미나를 먼저 시작했으며, 2년 전 한국에서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를 시작했다.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세미나

뉴욕사모기도회, 강사 홍혜경 사모

뉴욕사모기도회(회장 김경신 사모)가 4월 9일 오전 뉴욕초대교회(담임 김승희 목사)에서 홍혜경 사모를 강사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주제의 사모세미나를 개최했다.

홍혜경 사모는 홍의만 목사의 부인으로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웨스픽 신학교 뉴욕 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고든콘웰신학교 목회학박사 논문인 “이민 한인교회들을 위한 노인 목회의 방안”을 책으로 출판했으며 이날 참석자 사모들에게 전달했다.

홍혜경 사모는 볼티모어에서 12년 목회하고 중국으로 가서 13년 사역했으며, 2010년 뉴욕에 와 후진들을 양성하고 있다. 홍 사모는 “성도들이 사모 때문에 뭔가 불평이 있으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시대가 강박해서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성도들이 더 많은 지식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교만해지고 사모의 역할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홍혜경 사모는 “이 시대에 사모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저는 위로하지 않는다. 힘든 것이 당연하다.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셔서 목사와 사모로 불러주셨다. 특권을 주신 것은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홍혜경 사모는 “내면이 아름답다

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라는 것이다. 내 유익이 먼저인가 아니면 교회와 하나님나라 백성의 유익이 먼저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준다”며,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배려와 이해, 경청과 따뜻함으로 대한다. 상대가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무시할 때, 불쌍히 여기고 자신을 돌아본다. 상대가 나를 거절할 때 기도하며 때를 기다린다. 나를 비판할 때 나는 자신과 과오를 인정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다가가며 조건 없이 사랑한다. 다른 사람이 소외되고 외로워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어 격려해준다. 다른 사람의 좋은 분이 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나눔의집 & 한국기독교국제금주학교가 공동주최한 제1기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수료자들이 찬양하고 있다.

제1기 전인치유 리더교육 7명 수료

뉴욕나눔의집 & 한국기독교국제금주학교 공동주최

뉴욕나눔의집(GMAA, 대표 박성원 목사)과 한국기독교국제금주학교(CITS, 대표 김도형 목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기 전인치유 리더교육 수료식이 지난 5일 뉴욕 나눔의집에서 열렸다. 4주 동안 오전부터 오후까지 전인 집중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7명(성영호, 조용수, 우정국, 김용필, 김동오, 이종수, 배창호). 1부 수료예배는 박성원 목사 인도로 양민석 목사(나눔의집 부이사장)의 기도, 수료자 전원 특송, 임영진 목사(열린교회)의 설교(본문: 었8:5-7), 정순원 목사(뉴욕교회협부

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2부 수료식은 최경미 박사(한국 KNAADAC대표) 사회로 김도형 목사의 권면, 박성원 목사의 수료증 수여, 수료생의 교육소감, 케익커팅, 이종명 목사(뉴욕교회협 증경회장)의 축사, 김길홍 목사(GMAA 후원이사장)의 마침기도 순으로 진행됐으며 순환권 목사가 친교 기도를 했다. CITS 대표 김도형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폐인 같았던 자신을 사용하셔서 30년 동안 수 백명의 중독자들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게 하신다”며 “실망 낙심 좌절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치유 받고 리더훈련을 받은 여러분들이 심상 깊숙한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잃은 교회를 회복시키며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제2기 전인치유리더훈련은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등록비는 무료. ▲문의: (718)683-8884/박성원 목사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뉴욕사모기도회 세미나를 마치고 강사와 회원들이 기념촬영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and Hawaii. Includes sections for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and '하와이 및 북미 지역'. Lists various churches with their names, addresses, phone numbers, and pastors.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도시 세운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미주(LA)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는 15일 소망선교회(담임 조은철 목사)에서 창립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종술 목사의 찬양인도와 옥세철 장로의 기도도 시작된 이날 1부 감사예배에서 미주대표회장 송정

명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성시화 운동은 1530년도 제네바에서 존 칼빈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네바시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임하고 성경이 모든 시민의 길잡이가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시로 세워지면 좋겠다는 취지로 태동된 운동”이라며 “이 운동이 한

국에서는 1972년 춘천에서 시작됐고 2003년 2월 미주 지역에 심어져 오늘에 이르렀다”며 감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진유철 목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갈멜산 영적 전쟁”(왕상18:36)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진 목사는 “지금과 유사한 시대가 오는 본문의 시대가 아닐까한다. 지금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반드시 영적인 싸움은 적과의 싸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반응해야 이길 수 있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어떤 대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고 능치 못할함이 없으시기에 영적 전쟁에 승리를 나타낼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바로 세워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축사는 김완중 총영사, 서영석 장로가 맡았으며 최문환 장로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민중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CCC SMTC찬양팀의 특성과 케이커빙이 있는 후 만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미주성시화본부 새 사무실은 621 S. Virgil Ave #455 LA. CA 90005에 마련됐다.

(이성자 기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15주년 및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가 성황리에 열렸다

장로 등 27명 은퇴, 119명 임직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은퇴 및 임직 감사예배가 15일 오후 4시에 성황리에 개최됐다. 노창수 목사 집례로 시작된 은퇴 및 임직예배는 은퇴장로 영상인사, 은퇴장로 은퇴 안수집사 은퇴권사 감사전담 축복기도를 했다.

이어 임직식은 사역장로 부부 소개, 임직장로 영상인사, 장로 임직서약 및 악수례, 공포, 장로 임직 패 증정, 안수집사 임직서약, 안수례, 공포, 집사 임직패 증정, 시무권사 임직 서약, 공포, 권사 임직패 증정, 협동, 명예권사 임직서약, 공포, 권사 임직패 증정, 축복기도로 진행됐다.

이어 박승규 목사(동부사랑교회)가 축사했으며 김기섭 목사(LA 사랑의교회)가 권면, 노창수 목사가 축도했다.

이날 은퇴 및 임직예식 전에 열린 예배는 쉼이나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시작, 노창수 목사가 합심 기도를 인도했으며 임규호 장로가 대표 기도했다.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이어 박영배 목사(뉴라이프선교회), PCA한인서남노회 OC노회(중경노회)가 “하나님의 계도”(롬 11:33-36)라는 제목으로 “직분자를 비롯한 일꾼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역사 속에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양신봉 장로 등 4명의 장로, 배동희 집사 등 9명의 안수집사, 고서경 권사 등 14명의 권사가 은퇴했으며, 김장성 장로 등 8명의 장로, 강병순 집사 등 44명의 안수집사, 강해숙 권사 등 48명의 시무권사가 임직하고, 강한숙 권사 등 9명이 협동권사, 그리고 김선영 권사 등 10명이 명예권사로 임직했다. (박준호 기자)



사랑의빛선교회 창립 25주년 부흥회에서 강사로 초청된 박은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강사 박은조 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설립25주년 부흥회

사랑의빛선교회(담임 윤대혁 목사) 설립 25주년 기념 부흥회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주제로 13일부터 15일까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열렸다.

15일 3부 예배 시간에 열린 집회는 윤대혁 목사의 인도와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 추명철 장로가 기도했으며 시온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어 박은조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마11:25-3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박은조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 권사, 장로 등 지도자로 세움 받은 자는 하나님께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사역자들은 교회에 종으로 부름 받았다.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종으로 세움 받았다”며 “모든 남편과 아내들은 배우자의 종으로 부름 받

은 자다. 배우자는 서로의 종이 되는 것이며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결혼생활하면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며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둘째, 주님이 지려고 하는 짐을 우리가 질 때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부모 자식의 짐이든 어떤 짐이든 짊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고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좋은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소망소사이어티 제6회 소망포럼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제 6회 소망포럼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기억이 사라지는 그 날 ‘치매’”라는 주제로 21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동양선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977-4580

신은경 권사 미주간증집회

전 KBS 아나운서 신은경 권사 미주순회 간증집회가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샘신 목사)와 OC교회협의회(회장 이서 목사) 주최로 열린다. 일정은 △4월 12일 오전 10시 미성대학교 신학생 대상 세미나 시작으로 △18일 저녁 7시 중현선교회 △21일 새벽 5시 30분 나성영락교회, △22일(시간 미정)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 연합집회 △23일 오전 10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회자 세미나 △25일 저녁 7시 다우니제일교회 △27일 저녁 7시 글로발선교회 △29일 오후 1시 오렌지힐교회 △5월 2일 저녁 7시 나성순복음교회 △4일 저녁 7시 주님의영광교회 △5일 저녁 7시 OC교협 주최 연합집회 등에서 간증할 예정이다. ▲문의: (213)500-5449

담임목사 청빙

남가주 LA에 위치한 한길교회는 보수 개혁주의 신앙에 확고한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5년이상 목회경험(부목사/행정/교육목사 포함), 정규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학위 취득자, PCA나 CRC에 가입됐거나 가입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이며 이력서, 본인소개, 신앙고백서, 목회비전, 1년 이내 2편의 설교(최소 한편은 동영상), 목사 안수증명서, 대학 및 신대원 졸업증명서, 목회자 2명의 추천서를 5월 31일까지 thewaychurch.calling@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모든 서류는 PDF로 보내야 한다. ▲문의: thewaychurch.calling@gmail.com



한인 비영리단체 _FACE_ 사무실에서 열린 직업(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종사하는 사람들은 3%에 머물고 있다. 이는 아프리카아메리칸 등 타인종에 비해서도 광장이 낮은 비율로, 인력센터에 대한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혹은 영어구사의 불편함이 큰 이유로 파악 된다”며 “API JOB은 구직자들의 그런 불편을 해소하고 인력센터에서 제공하는 잡 트레이닝 및 취업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샘신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때”라며 “성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

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FACE는 API JOB의 첫 활동으로 오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월서사무실(3550 Wilshire Blvd)에서 잡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방문 전 인터넷 사이트(www.facela.org/programs/api-jobs-initiative)를 통해 등록하면 상당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구직자들은 FACE 방문 시,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거주증명(유틸리티 청구서), 실업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문의: (213)985-1500, 이메일: info@facela.org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시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00(영어) 주일 학교: 오전 10: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토요일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bn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f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철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어권 (왕소-KDC, 킹덤도움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8:00(월-토) 금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임하는 선교회” 목요일예: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9191(중), 사백(818)993-8607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245-90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주일 5부예배: 오전 9:15,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F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이영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연구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성경강좌(목요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백(818)9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대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엘바니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침례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영어):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2: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도원: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전통)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5:50(월-토) 성령대행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ic.org
좋은마음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per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한)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어) 정명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www.trancecc.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2009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이단들 잇따른 성추문...애꿎은 정통교회 불똥

‘서울 대령교회 목사, 신도 성폭행 의혹으로 피소.’ 11일 TV와 라디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온종일 오르내린 뉴스 제목이다. 마치 서울 지역에 있는 정통 교회 목회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읽힌다. 사실은 다르다. 범죄 의혹을 받는 장본인은 국내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된 이재록(만민중앙성결교회)씨다.

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발언들이다. 결국 그는 1990년 그가 속했던 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 총회와 타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그는 예성 교단에서 제명된 뒤 독자적으로 ‘예수교대한연합성결교회’란 교단을 만들었다. 신격화 문제는 이단들의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 성범죄 의혹으로 논란에 빠진 또 다른 이단

협회장은 “신격화한 교주처럼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착각이 오늘의 성폭행 사건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이단 전문가인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이씨의 경우 과거 두 차례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미투’ 같은 사회적 대처나 안전장치가 부족했다”면서 “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성범죄자로

이재록·김기동·정명석, ‘미투’로 가면 벗겨져

최근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계기로 이씨를 비롯한 이단들의 폐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일반 언론이 정통교회와 이단을 구분 없이 보도하면서 대다수 건강한 교회에 불똥이 튀고 있다. 교계 차원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성범죄 예방 등 기독교 내부의 자정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인 성락교회 김기동씨도 비슷한 경우다. 김씨가 잘못된 교리를 내세워 수십 년간 제왕적 권력을 휘두른 폐단이 뒤늦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범죄로 10년간 복역했다가 지난 2월 출소한 JMS 교주 정명석씨 역시 직통계시에 의한 신비주의로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추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든 지키려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만민중앙교회 측은 성범죄 의혹과 관련, “성폭행 성추행 보도는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한국교회가 지정한 이단 규정과 이씨에 대한 신격화는 잘 모르는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거짓 교리, 교주 신격화의 끝
이씨는 “(나에게는)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 “(나는) 물 위를 걷는 것 외에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을 이루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잘못된 교리에 따른 신격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자로 포장하고 범죄 행위까지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진용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정통교회-이단 명확히 구분돼야”
이씨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인터넷 뉴스 댓글 등에는 정통 기독교와 교회, 목회자에 대한 성도가 잇따르고 있다. 관련 기사에 정통

교회와 이단이 구분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성 총무인 이강춘 목사는 “이단인 만민중앙성결교회 명칭에 ‘성결’이란 단어가 들어가는데, 우리 교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유방언 정명석 김기동 등 이단들이 ‘기독교’ ‘복음’ ‘교회’ ‘예수’ ‘성결’ ‘침례’ 등의 용어를 차용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언론은 무조건 교회를 매도하기에 앞서 정통 교회인지 이단인지 반드시 확인을 거쳐 달라”고 요청했다.

기/도/칼/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박현승 목사
(카나다서부장로교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예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기적이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먼저 누이 마르다에게 부활을 증거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질문하셨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즉각 대답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확실하게 베드로처럼 신앙고백을 하였

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실제적인 테스트를 하셨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다. 마르다는 곤란해 하면서 “예수님, 오빠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멈칫거렸다.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때 예수님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녀의 믿음을 상기시켜 주셨다. 흔들리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마르다는 순종하며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 기적을 행하셨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견고해지면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숙해가야 한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진해야 한다. 조금도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감절 같은 믿음으로 성장해가야 한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지니게 한다. 다시 오실 예수,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지치지 않도록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한다.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나 솟아오르도록 격려한다.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칠전팔기의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준다.

예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사상이나 철학, 교리가 아니다. 실제요 진리이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새 생명의 실제이다. 성도의 삶은 복되게 하는 능력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이메일: bible66@gmail.com

교인 절반 이상 “남북통일·개헌 찬성”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회 현안 인식조사’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자 절반 이상은 동성애가 죄라고 인식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이사장 윤길수)은 10일 ‘2018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표).

지난 2월 26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전국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기독교인 800명, 비기독교인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 기독교인의 57.4%는 남북통일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비기독교인(46.5%)보다 10.9% 포인트 높은 수치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생각이

크게 엇갈렸다. 20대 기독교인 55.8%가 통일을 위한 반면, 비기독교인 20대는 27.0%만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연구원 신익상 성공회대 교수는 “교회가 선교적 관점에서 통일을 강조한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타 종교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각은 38년 전보다 관대해졌다. 기사연의 1980년 연구에서는 성도의 62.6%가 ‘기독교만이 참진리’라고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종교나 가르침에도 진리가 있다고 응답한 신자가 47.2%로, 그렇지 않은 이(23.9%)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20.1%는 성서에도 오류가 있다고 응답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55.9%, 비기독교인 65.0%가 각각 찬성했다. 또 기독교인 42.0%, 비기독교인 55%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통치구조로 선택했다. ‘동성애는 죄인가’라는 질문에는 기독교인 53.5%, 비기독교인 18.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북한에 지하교회 “없다” “있다”

진실은?...목격자 증언 불구 논란 계속

남북 및 북·미·북 정세회담을 앞두고 교계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원활하지 못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려는 이유에서다. 북한에서 예배나 행사를 갖기 위한 방북 신청도 줄을 잇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평양 북승교회와 칠골교회, 제일교회 등이 있고 출석교인 수는 350~400명 정도다. 북한 당국은 가정예배 처소(신자 10여명이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가정집) 500여곳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양신학원에서는 목회자도 양성한다.

하지만 교계 일각의 판단은 다르다. 북한 사회의 특성상 지하교회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북한선교 무용론까지 제기된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과연 존재하는가. 지하교회를 목격한 증언들이 있음에도 반론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하교회는 정부의 탄압을 피해

몰래 예배드리는 교회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하교회는 기존 체제에 저항하는 ‘저항성’과 ‘비밀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북한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탈북민 대부분은 북한에서 교회의 존재는커녕 예배드리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최옥 한민족학교장은 “북한은 하나님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곳”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 주민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김일성 일가를 신처럼 모실 수 없게 되니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태원씨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다. 그런데 북한 형편에 그런 조항이 없다. 때문에 다른 범죄(간첩죄, 국가반역죄 등)로 바뀐 정치범수용소로 보낸다”고 폭로했다.

북한선전대 출신 가수 백미경씨도 “한때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

으로 불리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오히려 ‘종교가 없어진 유일한 나라’로 불린다”고 했다. 이태원 자유통일문화원장은 “북한의 북승교회, 칠골교회 등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다. 교회 모형 전기관이다. 통일전선부에 등록된 열성분자들이 참석한다”고 했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북한은 ‘종교는 아편’으로 규정하고 배척한다. 공산혁명 완수를 위해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선전한다. 이런 사상적인 배경에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사상과 유신론을 배척하는 무신론이 있다”고 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종교행위를 하면 서로 신고한다”고 했다.

“북한에 크리스마스가 있느냐”고 묻자, 최 교장은 “크리스마스 총공세(유엔군이 6·25전쟁 때 크리스마스 때까지 총공격한다는 의미)라는 말은 들어봤다. 하지만 딱히 어떤 단어인지 풀이해주는 교사는 없었다. 교사들도 뜻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알려주면 불합치니까 무서워서 안 알려준다”고 했다.

탈북 뮤지컬배우 김충성 목사는

“북한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이 나왔다. 하지만 예수님 탄생기념일인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원장은 “만약 북한에 교회가 있다면 성경책을 가진 사람을 색출해 공개처형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선교단체 관계자들의 설명은 탈북민들 얘기와는 달랐다. 북한에 지하교회와 신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픈도어선교회 관계자는 북한 내 기독교인 수에 대해 “북한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그 수를 20만~40만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며 “어떤 수치를 사용하건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북한교회와 전천후, 그렇지만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6·25전쟁 전 북한에 약 50만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자 많은 기독교인은 북한을 탈출했다. 전쟁이 끝나고 북한에 남은 신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감옥에 갇히거나 오지로 추방당했다.

(15면으로 계속)

“청평에 이단 신천지 박물관 용납 못해”

지역교계, 청평교회에서 이단대책 세미나·겉기대회

신천지에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일대에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청평교계·주민들이 이단대책세미나와 겉기대회를 여는 등 지역 지킴이에 적극 나섰다. 신천지는 박물관을 건설하면 오히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여론전을 시작했다.

가평기독교연합회(가기연) 소속 교회 성도 850여명은 15일 청평교회(장익봉 목사)에서 경기도 구리 이단상담소장 신현욱(구리 초대교회) 목사를 초청해 열린 이단대책세미나에 참석했다.

신 목사는 먼저 “신천지는 예수님

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지 않고 동성녀 탄생, 삼위일체, 성육신, 몸의 부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며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자라고 주장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는 인터뷰, 동아리활동, 문화강좌, 진로·신앙·심리상담 등을 가장해 속임수로 접근해 포교 활동을 한다”며 “때가 되면 순교자의 영과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가 합일돼 영생불사한다고 믿는 이단·사이비집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천지대책청정범시민연대가 주최한 겉기 대회에는 지역 교계

성도와 주민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5시부터 청평교회 앞에서 출발해 청평 4리의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향해 행진했다. 이들은 “산수 좋은 청평 땅에 신천지 교주 기념관이 웬 말이나” “신천지 집단 성지추진 청평주민 안 속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신천지 박물관 건립을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 높여 외쳤다.

행진에 참여한 홍성화(78) 청평4리 노인회장은 “신천지 박물관이 들어서면 사기포교로 청평 주민들의 가정이 망가진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 참가자는 “신천지가 지역을 흥보전단지 돌리고 거리 청소를 하며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지만 속이 뻘히 보여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천지는 지난 7일부터 “종교시

설이 아니라 평화박물관을 지으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적힌 홍보물을 청평면에 살포하고 거리 청소를 하는 등 부정적 여론을 뒤집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어 15일에는 신도 2000여명을 동원해 맞불 집회를 열었다.

한교총 상임위 구성완료...9개 핵심사업 주력

한국교회 교단장회의 공동 개최키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전계현 최기학 전명구 이영훈 목사)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9개 핵심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정배 한교총 대변인은 “한국교회 95% 이상이 참여하는 한교총은

선교 중심 교단인

C&MA(Christian & Missionary Alliance·그리스도인과 선교사의 연합체)한국총회가 지난 8일 설립됐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Alliance Church of Korea).

얼라이언스 한국총회는 이단 안산 살롬교회에서 창립감사예배를 드리고 선교 중심 연합체로서 세계 복음화와 건강한 교회 설립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총회장에는 정길진(우리성문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사무총장에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국제무지연맹 국제심판 기술위원인 신다윗 목사가 맡았다.

정길진 총회장은 “소년 다윗과 같이 작지만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얼라이언스 총회가 되어 그리스도 중심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길 원한다”며 “이제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길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교단은 강력한 선교 연합체 수립과 해외 선교사 파송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한국 내 다민족 복음화, 선교 지향적 글로벌 청소년 사역, 스포츠 선교, 신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 국제적 인적 교류 확장에 힘을 쏟는다.

C&MA교단은 19세기 말 미국에서 시작된 선교 연합체다. 이 교단이 개최한 선교대회에서 은혜를 받은 길보른(Kilbourn)과 카우만(Cowman)이 일본에 동양선교회(OMS)를 창설했다. 1907년 여기서 정병, 김상준 등 조선의 젊은이들이 목사안수를 받아 현재 한국성결교회의 모태가 됐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85개국

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2만 5000개 교회, 650만 성도가 소속돼 있다. 전 세계 얼라이언스 교회는 ‘얼라이언스 세계연대(Alliance World Fellowship)’로 연결돼 있다. 뉴욕 뉴욕대 등 4개의 대학과 2개의 대학원이 있다.

얼라이언스 한국총회에는 분당 셋별교회, 일산실버커뮤니티교회, 포항주평교회, 익산들림성결교회 등 15개 교회, 50명의 목회자가 소속돼 있다. 국내외 선교 협력을 위해 다 교단 교회들도 순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사무실은 인천 연수구 만우로 218 푸르지오 3단지 306호다. 경기도 안양과 분당에 선교센터와 교육센터도 있다.

총회에는 C&MA 총재 존 스텐보 박사, C&MA 부총재 로실리오 로만 박사, 한국 얼라이언스 이사장 김수태 목사, C&MA 한인총회 백한영 감독, C&MA 한인총회 전 감독 문형준 목사 김길 목사 등 C&MA 교단 관계자와 한국 총회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신상범 목사, 예성 총회장 직무대행 윤기순 목사, OMS 한국지부장 태수진 박사(Susan Truitt), 아신대 총장 김영욱 박사, 서울신대 총장 노세영 박사, 성결대 총장 윤동철 박사, 나사렛대 총장 임승안 박사 등이 축사했다.

C&MA는 1990년대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와 지속적으로 선교 협력을 지속해왔으며, 한국성결교회연합과도 선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일위원회 최태순(예장통합), 사회정책위원회 안준배(기하성 여의도), 선교협력위원회 이인구(기갑), 교육협력위원회 안성삼(예장개혁), 언론홍보위원회 음재용(예장대신), 교류협력위원회 민찬기(예장합동), 바른신앙진흥위원회 김성복(예장고신), 예산심의위원회 김진호(기성), 회원실사위원회 조원희(기침) 목사.

앞으로 남북한 평화통일과 교회

관련 대화와 정책, 세계선교를 위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9개 핵심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다음은 상임위원장 명단. 평화통

선교의 창 (99)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크리스천의 언어생활

인간은 언어적 존재이다. 인류는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언어와 더불어 느끼며 언어 속에서 존재해왔다. 포유류 중에서 인간이 최고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정밀한 상징 체계인 언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언어란 전통적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내포되어 있다. 이 언어는 과장을 낳는다. 언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가 한 말의 95%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자기 입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다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이다.

다른 한편 인간이 표현한 언어는 이웃과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 원리는 호수에 돌을 던질때 일어나는 파문과 같다. 큰 돌일 수록 파문이 크듯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는 책임감이 따른다. 언어는 인간의 행동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언어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적 비결은 무엇인가?

1. 혀(언어)의 권세

인간의 혀는 권세가 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인간의 혀는 무게가 9g 정도에 불과하지만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수뜨릴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인간이 그 혀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말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다. 우리 인간 사회도 말의 법칙이 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다. 인간이 내뱉는 언어와 입술의 열매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2. 자기 언어에 묶이는 성경적 사

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14:28).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났다. 저들은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다. 열 명의 정탐꾼은 겁에 질린 채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 거기에는 네피림인 아나자자의 거인들을 있으며 이에 비해 자기들은 마치 매뚜기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에 백성들은 여호와와 인도하심에 대한 도전적 발언을 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차라리 '가나안에 가지 말고 애굽

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자'라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저들 1세대 이스라엘은 두 사탄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믿음의 보고를 하였다. 결과 그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원망의 말은 이토록 무섭다. 한번 뱉는 말은 엇지른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고 했다. 이는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적 원망에 대한 지침이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임을 이웃이든 말을 할 때 입에 재갈을 물리듯 절제하며 가능한 원망의 말을 삼가 함이 좋다.

고 있다. "태우는 불, 지옥 불, 불의,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바로 그것이다(약3:6). 이렇게 혀를 잘못 사용하며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종종 불신앙과 불멘소리를 습관적으로 하기 쉽다. "죽겠다죽겠다"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 날이면 날마다 궁상스러운 얼굴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한 태도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투덜대는 버릇은 악성 바이러스이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현실 보다 앞을 내다보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3. 언어생활의 기본 지침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말을 하면 자신과 상대방 이외에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깨달아 우리의 혀를 잘 통제해야 한다. 선한

말은 자신을 복되게 하지만 악한 말은 자신과 이웃을 살상한다. 옛말에 세지 허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똑같은 혀이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을 죽이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을 살리게 된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다 내 혀제들이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약3:10-11).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때문에 야고보서 기자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매 장마다 언급하고 있다. 그는 잘못 사용되는 혀의 흉악한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

이는 대상, 때, 장소를 가려 유효적절한 말을 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할 때에 듣는 이의 마음이 즐겁고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된다.

이를 위해 첫째 진실의 말을 해야 한다. 진실은 옳음에 기초한다. 거짓은 사탄의 본성이다. 둘째 사람의 말을 해야 한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울리는 썰매가 되고 만다. 사람이 있으면 상대방이 자기처럼 느껴지게 된다. 타자가 아니라 합일이다.

셋째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은혜 중에 은혜는 복음에 관한 말이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일어난다. 온갖 근심과 미움이 사라지고 주변이 환해진다. 담론의 주제가 늘 예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넷째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울고, 사랑이 있고 은혜로운 얘기일지라도 전달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 때, 장소를 잘 분별해서 항상 덕스럽게 말을 해야 한다.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방법이 나쁘면 관계마저 그릇 될 수 있다.

맺음 말

언어는 인간의 인격과 사상을 대변한다.

아름다운 언어는 맑고 순수하며 향취가 있다.

크리스천은 진실, 사랑, 은혜,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쓴 화살, 잃어버린 기회, 내뱉은 언어이다. 일단 쓴 화살은 멈출 수 없다. 이미 놓친 기회를 붙잡을 수도 없다. 그리고 일단 한 말은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는 언어를 구사하는 자에게는 책임감이 따른다. 언어는 인간의 행동을 견인하기 때문이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언어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언어적 비결은 무엇인가?

고 있다. "태우는 불, 지옥 불, 불의,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바로 그것이다(약3:6). 이렇게 혀를 잘못 사용하며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종종 불신앙과 불멘소리를 습관적으로 하기 쉽다. "죽겠다죽겠다"하면 죽을 일만 생긴다. 날이면 날마다 궁상스러운 얼굴로 불평과 원망을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한 태도는 들어온 복도 깨뜨린다. 투덜대는 버릇은 악성 바이러스이다. 부정적인 언어는 불운을 초래한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현실 보다 앞을 내다보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4. 은 쟁반에 금 사과 같은 언어 방법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잠25:11). 인간은 말로서 서로 소통하며 사는 존재이다.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 빛도 갚는다"고 했다. 말(語)의 위력은 말(馬)이 끄는 힘보다 더욱 강력하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은 쟁반에 금사과처럼 조화를 이룬다.

A soft answer turns away wrath. 말은 뇌세포를 변화시킨다. 말에는 각인효과(刻印 果)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내적으로 침투하게 된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 말은 맑고 적응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관건이다. 크리스천들은 십자가 아래서 육신의 소욕을 죽임으로서 아름답고 순수하며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는 말을 할 수 있다.

jsong007@hanmail.net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급성 담낭염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분비하면서 소화나 흡수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담낭에 돌이 생기고 염증이 발생하면 담낭이 담즙을 제대로 분비할 수 없게 되어서 소화불량이 올 수 있고 복통을 수반하게 된다. 담낭의 돌 자체로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지만 담낭의 돌이 담도를 막거나 췌장관을 막게 되면 그 합병증으로 담도염이나 췌장염을 유발 할 수도 있다.

- 60대 중반의 가정주부 정 모씨는 심한 우측 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집에 비상용으로 보관해둔 진통제를 먹었다. 진통이 조금 가라앉았으나 상복부 통증이 오른쪽 어깨로 타고 올라가는 증상은 계속되었다. 또 구토 증상이 심했고 병원을 찾아올 때는 발열감도 있었다.

정씨는 지난 10년간 당뇨병을 앓았고 수술은 한 적이 없었다. 당뇨약 이외에는 복용하는 약은 없었고 담배나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독실한 신자였다. 검진상 혈압은 100/60mmhg, 맥박이 분당 100회로 조금 빨랐고 체온은 38.6도로 높았다. 몸무게는 90킬로그램, 키는 157센티미터로 비만형에 속했다. 복부 촉진상 상복부 통증이 우측 어깨까지 타고 올라가는 증상이 심했다.

일단 정 씨는 담석증으로 인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을 받고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담낭에 돌이 보였고 담도가 확장되어 있었다. 곧바로 담낭 절제술을 받은 정 씨는 곧 완치되었다. -

담낭에 돌이 있는 경우는 매우 흔하고 그 자체로는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 담석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수술은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단순한 담석으로 인한 통증인지 담낭의 염증으로 인한 통증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단순한 담석증으로 인한 통증을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담관이 눌렸을 때 담낭이 수축해서 생긴다.

담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급성 담낭염인데 통증의 정도가 훨씬 심하다.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겨서 수술이 복잡해지고 수술 후 후유증도 심하다.

따라서 담석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 상복부에 평소보다 심한 통증이 있거나 발열감이나 황달이 상복부 통증과 함께 있는 경우는 급성 담낭염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을 찾아야 한다. 특히 당뇨병을 앓는 경우는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오후예배: 오후 7: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 오전 6:00(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공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열 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벨앨교회 담임목사: 백성중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토요일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아, 유아, 초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샬럿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일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오 예 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알라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한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부흥예배: 오후 11:15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델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엘파소델리문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영성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은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킬린노드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부흥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헌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11:15 수요일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오 예 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아리조나 기도원 매매 좋은 환경과 쾌적한 공간에 위치한 아리조나 기도원을 좋은 가격에 매매 합니다. - 대지 7.3에이커 - 건물 3동 과 예배실 - 피닉스 공항에서 50마일 거리 문의: 623-326-5532	

인/터/뷰

윤향금 사모 (‘예수가정치유상담연구원’ 원장)

“모노드라마 통해 치유사역 한다”

한국의 ‘예수가정치유상담연구원’ 원장 윤향금 사모가 LA를 방문했다. 이번엔 오래 머물면서 개 교회를 찾다니며 치유사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왔다. 윤 사모는 한국에선 유명한 치유사역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인도해 온 집회만 700여회에 이른다. 숭실대학교 기독교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 석사를 받고 햇빛트리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현재 선한목자교회(유기성 목사)에 출석하고 있는 윤 사모는 우선 내적치유 1인극으로 치유에 접근한다. 1인극 ‘겨울’,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윤 사모가 창작, 연출하고 직접 공연까지 한다. 그래서 특별한 무대와 준비 없이 교회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이유에서였는지 제 입에서 찬양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Go Tell It on the Mountain’이란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주

턴 성구였고 그 말씀이 계기가 되어 활발히 사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루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가계에 걸려있는 말

예요.” “주여, 나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등 여러 권의 저서를 출간한 윤 사모는 CTS 기독교TV와 극동방송에서 ‘상한 마음 치유 칼럼’ 등을 방송했고 온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 지구촌교회(진재혁 목사) 등 대형교회 등에서 순회 치유집회를 인도해왔다. 윤 사모의 치유집회는 모노드라마로 구성된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연극공연, 워십댄스와 윤향금 사모 간증, 이야기 성경적 상처치유 강의, 하나님의 품에서 드리는 기도순서로 구성된다. 집회개최 교회의 형편에 따라 1일 치유집회도 가능하고 1-3일 치유부흥집회도 가능하다. 또한 집회에 말씀중심의 집회를 할지 워십댄스, 모노드라마, 강의 등으로 진

내적치유 1인극으로 접근...창작, 연출, 공연까지 직접 교회 형편 따라 공연, 워십댄스, 간증, 강의, 기도집회

감동이 넘치는 무대다. 윤 사모가 치유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하나님께 드린 서원기도 때문이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기도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걸 하고 싶다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뭐랄까 백지 한 장을 들려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걸 그려달라고 했었어요.” 윤 사모는 그렇게 서원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에 대해 어느 순간 잊게 됐다고 말하며 다시 생각나게 한 건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코네티컷주에서 살고 있었던 1987년 어느 날이었다. “제 아이가 보행기를 타고 놀고 있었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남께서 고등학교 시절 드렸던 서원기도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저보고 치유사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윤 사모는 하나님께서 모노드라마를 통해 치유사역을 해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대본작업도 하고 당시 출석하던 대성교회에서 첫 번째 드라마를 하게 됐다. “첫 번째 드라마를 할 때가 생각나요. 드라마를 하고 내려왔는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었어요. 사역을 하라고 시키셨으면 좀 잘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못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는 의심도 되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멍한 상태로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낙심이 된 채 하루하루를 살던 그녀가 다시 힘을 내게 된 것은 길에서 보았

슴이 눈에 들어왔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율기의 말씀이 제 마음에 위로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온누리교회를 시작으로 교회와 학교에서 사역요청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며 그 아픔에는 한국의 유교적인 문화로 인해 파생된 것들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 그는 말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것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아픔을 꺼내 놓지 못하는 걸 보게 되요. 그걸 내어놓으면 마치 무능한 자가 된다든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아픔과 약함을 내어놓을 때 나타나는 것은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이

행이 할지에 대해서도 교회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연세대학, 숭실대학, 중앙대학, 고려대학 등 수많은 대학과 심지어 중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치유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는 윤 사모는 남편 최해국 목사와 결혼해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저는 오는 6월 4일까지 LA에 머물게 됩니다. 많은 교회를 방문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예배회복, 영성회복, 기도부흥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 ‘윤향금’, 혹은 ‘예수가정치유상담원’을 검색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임시연락처: (323)683-7302 (박준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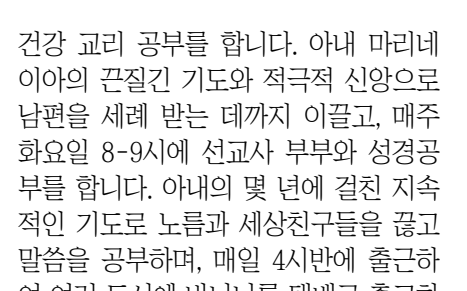
선교 펴기

브라질

브라질은 가을에 접어들었다. 추수의 계절이 한창입니다. 올해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전 대통령 툴라의 최종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툴라 대통령을 위한 노동당은 전국에서 대통령 감옥 재판을 불법이라고 데모를 합니다. 또한 이웃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브라질 가장 북쪽 ‘호리아마’주로 몰려 들어오고 있

결혼한 부부들이 여러 도시에 퍼져 있습니다.

세례식 세례식 마치고 부모(프란시스코, 알리시)를 고향 ‘보니포’로 보내며 성경책 증했습니다. 살레스, 마리네이아 부부는 매주 화요일 가정에서 장로교회출판사에서 발행한



슬입니다. 차베스의 반미,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라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교리 공부를 합니다. 아내 마리네이아의 끈질긴 기도와 적극적인 신앙으로 남편을 세례 받는 데까지 이끌고, 매주 화요일 8-9시에 선교사 부부와 성경공부를 합니다. 아내의 몇 년에 걸친 지속적인 기도로 노름과 세상친구들을 끊고 말씀을 공부하며, 매일 4시간에 출근하여 여러 도시에 바나나를 택배로 출고하는 일을 합니다.

설립기념 감사예배 노보감뎀림교회 25주년 생일 감사예배를 은혜가운데 드렸습니다. 이날 설교는 양원모 선교사가 기도는 이혼우 선교사가 했습니다. 노보감뎀림교회는 엠부도시에서 장로교로서는 25개 동네에서 유일한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 사모, 신학생들을 배출한 교회입니다. 25년 동안 어린이들이 자라서

기도제목 저희 부부는 △GMS 선교대회 참석 △현지교회 담임할 선교사 발굴 △김향실 선교사 임플란트, 튜마티즘 치료 △아버지(94세), 어머니(90세) 방문을 목적으로 고국을 5월 2일부터 7월 17일까지 방문합니다. 노시영, 김향실 선교사 드림 nohsyoung03@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lan.org Tel: (82)2-46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02)525-7767, HP: (017)237-825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90-998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02)926-926-4508</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8-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942-6881, Fax: (02)9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인현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40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p>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7)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독교 경영의 다섯 가지 핵심원리

기독교 경영을 논의할 때 대 전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사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등이 그러한 예이다.

기업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분의 주권이 기업 세계 위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경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기업에 속한 구성원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경영을 수행하는 것,

(Creation), 책임(Accountability), 배려(Benevolence), 공의(Justice) 그리고 신뢰(Trust)이다.

먼저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 활동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이다.

기독교 경영은 창조를 위한 경영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창조의 사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하여 잘 활용해서 사명을 이루는데 기여해야 한다.

재능개발의 일차적인 책임은 물론 각자에게 있겠지만, 조직도 이 일에 동참해야 한다. 비록 재무적 성과가 있다고 해도 직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핵심역량 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재능개발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교육의 제공이나 혼자 학습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

창조(Creation), 책임(Accountability)

배려(Benevolence), 공의(Justice), 신뢰(Trust)

기업경영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리고 기업을 통한 선교를 하는 것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할 것이다.

또 경영활동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표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 전제들은 기업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다른 영역에서도 실현되어야 하기에 보편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기독교 경영의 대 전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창지기 정신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독교 경영의 대전제를 바탕으로 기독교 경영의 실행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원리"라는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섯 가지 핵심원리는 창조

역이 이어지도록 명령하셨고, 기업은 그런 창조의 연장선상에서 기여를 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창조활동이 잘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유, 재능개발, 참여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유는 '가치 창출 과정에서 제도나 관행 및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유는 모든 창조활동의 기본 조건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창조와 재창조의 사역에 동역하면서 자유롭게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재능개발은 '개개인이 부여 받은 재능의 발견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능은 조직이나 사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다. 재능은 묻어 두거나 썩히기

하.

또한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능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에 배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비용이다.

참여는 '모든 조직구성원이 가진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부여'를 의미한다. 아무리 재능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작게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의 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하는 것부터, 크게는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dr.jameskoo@yahoo.com

<12면에서 계속>

그나마 남아있는 교회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모퉁이들신교회 관계자는 "북한교회는 70년간 핍박당하면서도 여전히 견제하다. 교단에 속한 북한교회는 생존하지 못했지만, 자체로서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북한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교회는 무형의 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교인 수 집계는 쉽지 않다"면서도 "적게는 30만명, 많게는 50만 명까지 본다. 이유는 해방 전부터 믿음을 지켜온 그루터기 신자, 식량을 구하려 중국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 감옥에 있는 10만명의 신자, 선교회가 직

간접으로 관여하는 수만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지하교회의 존재를 확인하는 증언도 잇따랐다.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는 "한 탈북민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재탈북해 목회자가 됐다"며 "지금 북한엔 지하교회가 있고 비밀리에 전도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북한의 3대 독재체제도 이런 복음활동을 막진 못한다"고 했다.

NK.C에바다선교회 대표 송부근 목사는 "북한에 지하교회를 운영 중"이라며 "고위층이 살던 큰 집 지하방식을 지하교회로 사용한다. 십자가도 벽에 걸려 있다. 매주 80-120명이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한다"고 전했다. 송 목사는 "한번은 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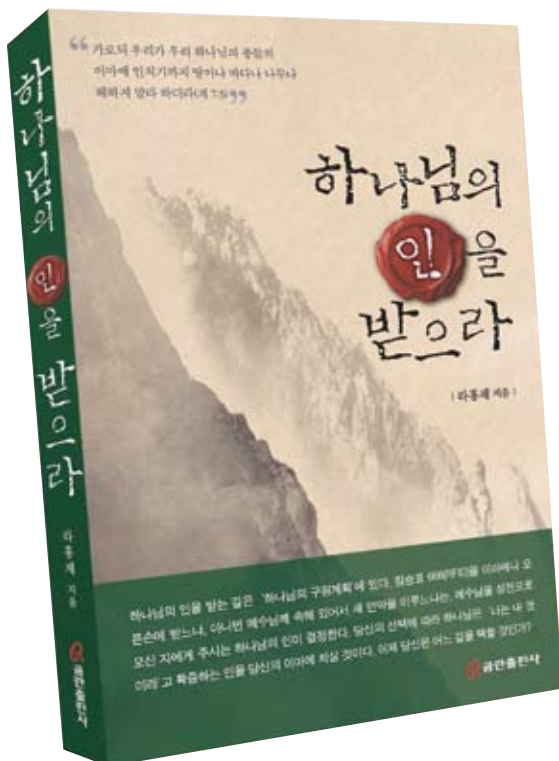
보위부가 지하교회 예배를 눈치 챘다. 하지만 '배고픈 주민들 밥 먹이는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돌려댔더니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또 "지하교회 교인이 남조선은 잘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는데 보위부가 간첩으로 오해해 구속했다. 며칠 뒤 돈을 써서 나온 적도 있다"고 했다.

조기연 아세아연합신학대 북한연구원장은 "중국의 삼자(三自)교회도 여용 교회였다. 하지만 지금은 은혜로운 교회로 변화되고 있다"며 "북한의 불수교회, 칠골교회 등도 여용 교회지만 외부에서 들어 전하는 말씀은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더디긴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삼하23:13-15)

본문은 하나님나라를 세우기 위해 충성을 다한 일꾼들의 활약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하나님나라의 일꾼들이고 예수님의 용사들입니다. 첫 번째 3인의 용사들을 통해 크게 깨달은 것은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더 나아가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3인의 용사들은 다윗 왕을 뜨겁게 사랑하

는 마음으로 충성했습니다. 블레셋이 베들레헬을 점령하고 있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 중에 다윗은 고향인 베들레헬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샘물을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세 용사가 알고 목숨을 걸고 그 샘물을 길러왔습니다. 자원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곳에 감격이 있습니다.

화 베들레헬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삼하23:16)

다윗이 블레셋과 치열한 전투 중에 어느 날 눈앞에 있는 베들레헬 샘물이 생각나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다윗의 이 말을 세 용사가 듣자마자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헬 성문에 지키고 있는데도 그 군대를 가르고 지나가서 그 샘물을 길어왔습니다. 16절 "충돌했다"는 것은 "적진을 가르다, 쪼개다"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목숨

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목할 것은 1)세 용사가 동시에 마음을 같이해 다윗이 원하는 샘물을 길어왔다는 것입니다. 2)다윗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원하는 것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대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수 그 들을 여외와게 부어드리고(삼하23:16-23)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샘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져왔지만 다윗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물이 곧 세 용사의 피라고 하면서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이러한 다윗의 마음으로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성도들의 충성된 헌신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어

드렸는데 그 이유는 세 용사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충성과 헌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시며 희생하시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목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삼하23:24-39)

모든 용사들이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맹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 중 두 사람은 꼭 살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첫 사람은 34절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지만 암살품의 반역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엘리암은 아버지를 따라 반역의 길을 가지 않고 다윗의 용사로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자세입니다. 또 한 사람은 38절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입니다. 다윗왕의 초창기 시절의 충신이었었는데 다윗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죽음을 당했지만 끝까지 충성한 우리아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나라의 용사로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삼하24:1)

본문의 이 사건은 삼하21장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막강하고 든든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군대가 막강하고 경제가 든든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다 머리를 숙이고 내적 외적으로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참으로 태평세월을 누릴 때이니

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면서 다윗이 서둘러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다. 인구조사를 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하루아침에 7만명이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성도들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잘될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토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삼하24:1-4)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1절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번 3년 기근동안 살려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근을 멈추고 살려주셨는데 또 다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흥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더욱 안타까

운 것은 다윗까지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는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사단은 역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마음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겸손 또 겸손해야 합니다(잠 16:18).

90% SOLD!
8 HOMES LEFT!

단 한채 남은 펜트 하우스 ONE PENTHOUSE REMAINING!

다시이 바로 꿈에 그리던
인 그 집 일 수 있습니다 !!



이번주 오픈 하우스 • 토 • 일 12시 ~ 5시

OPEN HOUSE THIS WEEKEND
SATURDAY AND SUNDAY 12-5

주 7일 (월-일)
12:00 - 5:00
• 상담 • 구경은
가능합니다
전화 주세요



Element 436 Condominium 은

L.A.-Koreatown 에서 가장 편리한 장소에
위치하여, 100여개의 Doctor's Office를 걸어서
갈 수 있으며, •찜질방 •한식 •양식 등의 식당과
•전철 •버스 등의 편리함과, 주거 공간으로서의
안전함과 쾌적함을 누리보세요.

436 S. VIRGIL AVENUE
LOS ANGELES, CA 90020
323.515.9373
WWW.ELEMENT436.COM



FEATURED
HOME
#PH9

3 BED • 2 BATH • 1385SQFT

Exclusively Represented By:
KW Larchmont
Keller Williams Realty

Dae Hur
BRE#01489175

Christina Kim
BRE#01431281

KW LARCHMONT
KELLERWILLIAMS

This is not an offer to sell, but is intended for information only. The developer reserves the right to make modifications in materials, specifications, floorplans, designs, pricing, scheduling and delivery of homes without prior notice. Buyers must be in a ratified contract by 2/28/18 in order to qualify for offer.

Each Office is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